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THREE-STRAND(HOLISTIC) BIBLE STUDY AS A HOLISTIC MINISTRY :
IN CONTEXT OF CLEVELAND KOREAN PRESBYTERIAN CHURCH

세겹줄(통전적) 말씀연구를 통한 목회방안 :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를 중심으로

A THESIS IN THE PRACTICE OF MINISTRY
SUBMITTED TO THE FACUL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BYOUNGHOE IM

임병회

CHICAGO, ILLINOIS

MAY 2023

THIS DOCUMENT IS SUBMITTED WITH PERMISSION
TO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FOR ITS DISTRIBUTION TO INTERESTED PERSONS

초록 Abstract

미주지역 모든 한인교회는 지금까지 나름 최선의 방법으로 목회하여 많은 이민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 왔다. 또한 많은 목회자들의 헌신으로 한인 이민교회가 각 지에 세워지고 다양하게 성장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중 많은 이민교회는 교회 분열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는 특별히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오며 가졌던 분열을 통한 성도의 불신 문제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말씀을 중심에 둔 목회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 안에 머물기 위해 특별계시인 성경을 중심에 둔 목회가 한인 이민교회에 가장 바른 대안이 됨을 인식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이에 세겟줄(통전적) 말씀목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홀로 있음'을 이루고 함께 모여 드리는 회중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확장되며 나아가 소그룹을 통해 말씀 앞에 '함께 있음'을 이루는 목회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 논문을 통해 지금 한인 이민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목회로 성장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방법이 제시되리라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초록 Abstract	ii
목차 Table of Contents	iii
감사의 글 Acknowledgment	iv
 I. 서론	 1
 II.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의 분열과 상처	 4
A. 교회 분열과 상처의 역사	4
B. 성도들에게 남겨진 상처와 계속되는 불신	6
 III.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 말씀목회의 필요성	 8
A. 성경적 가치관과 사명의 부재	9
B. 성경적 공동체성과 섬김의 부재	10
C.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목회의 필요	12
 IV. 세겟줄(통전적) 말씀목회를 위한 이론적 고찰	 15
A. 성경의 통전적 말씀목회: 개인, 공동체, 예배를 통한 모형	15
1. 요시아 시대 발견된 말씀으로 다시 세워진 이스라엘	17
2. 바울서신에 기록된 바른 목회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19
B. 본회퍼 신학의 통전적 말씀목회: 홀로 있음 과 함께 있음	21
1.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성도의 교제를 중심으로	22
2.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을 중심으로	24

C. 귀납적 성경연구를 통한 말씀묵회의 모형	27
1.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납적 성경연구	27
2.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귀납적 성경연구	29
V.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의 세겍줄(통전적) 말씀묵회	33
A. 말씀 앞에 '홀로 있음' :개인 말씀연구	34
1. 세겍줄 개인 말씀연구1 :관찰	34
a. 말씀 관찰1 :체계적 읽기	34
b. 말씀 관찰2 :꼼꼼히 읽기	36
c. 말씀 관찰3 :1인칭 시점 읽기	38
2. 세겍줄 개인 말씀연구2 :해석	39
3. 세겍줄 개인 말씀연구3 :적용	41
B. 회중예배에 선포되는 말씀	42
1. 목회자의 '홀로 있음' :회중예배를 위한 목회자의 말씀연구	42
2. 회중예배를 통해 말씀의 만남	43
3. 공동체로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기	44
C. 말씀 앞에 '함께 있음' :소그룹 말씀연구	45
1. '홀로 있음'의 은혜가 용납되는 공동체	45
2. '홀로 있음'을 통해 '함께 있음'을 발견	46
3. '함께 있음'에 초대	47
D. 적용과 평가	48
VI. 결론	50
참고문헌	66
부 록	69

감사의 글 Acknowledgment

박사학위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목회자로 부르셔서 주의 사명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역하는 모든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맥코믹 박사과정을 소개해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주신 김대성 교수님과 논문지도를 통해 시작단계부터 끝맺음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임영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부족한 아들 목사를 위해 노심초사 늘 사랑으로 걱정하시며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해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사위의 목회사역을 늘 염려하시며 기도해주시고, 귀한 섬김 목회의 본을 보여주신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서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사랑하는 아내 황정현, 그리고 아빠가 바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의 나침판이 되어준 사랑하는 딸 성경이와 사랑하는 아들 대규에게 큰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

2023년 5월 임병희

I. 서론

“미주 한인이민교회의 역사에는 저마다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결국 한인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바른 목회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를 목회하며 발견한 성도들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무엇인지 찾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리고 성도들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 그로 인한 불신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기 위해 이뤄야 할 바른 목회에 대한 방안을 찾고자 한다. 모든 한인교회가 그렇겠지만 교회의 분열의 상처와 아픔은 평소 때는 보이지 않는다. 마치 없는 것 같이 아무런 현상이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어느 시점에 어떤 환경과 상황이 되면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낸다. 마치 맑아 보이는 웅덩이에 돌이 떨어지면 흙탕물이 되는 것과 같다. 언젠가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인 것이다. 그러기에 본 연구자는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의 지난 시간에 걸쳐 쌓여온 이런 상처와 불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계시인 성경을 주셨고, 지금도 그 성경을 통해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계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별계시인 성경으로 한인이민교회의 상처와 아픔을 해결해 줄 방안으로 ‘세겹줄 말씀목회’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세겹줄 말씀목회’는 상처와 아픔이 있는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가 그 불신과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으로 말씀 앞에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이 조화를 이뤄내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귀납적 성경연구를 통한 개인 말씀 연구, 회중예배를 통한 말씀 확산 그리고 소그룹을 통한 말씀 나눔, 이 3가지 중심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말씀 앞에 ‘홀로 있음’은 각 성도들이 귀납적 성경연구를 통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각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한 후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목회자의 ‘홀로 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로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며 나아가 세 번째는 소그룹에서 각자가 연구한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함께 헌신과 나눔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용납하는 공동체로 확장하는

목회이다. 그리고 세 가지 구조는 진행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닌 서로 통전적으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교회는 행사나 이벤트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이 아닌 오직 말씀 속에서 바른 목회를 꿈꿔야 한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 안에 머물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것은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은 한 개인을 통해 공동체로 확장된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변화시키셨다. 모세도 그러했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다. 즉 말씀은 그 자체로 사회성을 포함하고 있기에 말씀은 결국 공동체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을 이뤄내는 것이 바른 목회일 것이다.

이에 본 논문 연구 범위와 한계는 한인이민교회가 가져야할 바른 목회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는데 있어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가 가진 문제와 상처를 진단하고,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불신과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말씀이 중심이 되는 목회를 이루는 바른 목회방향으로 ‘세겔줄 말씀목회’로 제시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그에 대한 목회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범위이다.

따라서 본 논문 2장에서는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 역사를 통해 성도들 안에 있는 분열과 상처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불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에 왜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왜 발생하게 되었었는지에 대해 진단하며 또한 그에 따른 원인분석을 통해 어떤 목회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에 필요한 말씀목회를 이론적으로 고찰하는데, 우선 구약 성경 안에서 역사적으로 나타난 요시아 시대 부흥운동에 대한 성경의 평가와 내용을 찾아보고, 사도바울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언급한 초대교회의 목회방향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바른 목회방향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본회퍼의 *성도의 교제* 와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 에 기록한 공동체성에 대해 살펴봄으로 그가 꿈꾸었던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으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고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납적 성경연구를 통해 말씀을 귀납적으로 읽고 연구할 때에 나타나는 유익과 강점들을 고찰함으로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가 가져야할 바른 말씀목회의 모형을 살펴봄으로 ‘세겍줄 말씀목회’의 성경적, 신학적, 실천적인 배경을 찾고자 한다. 마지막 5장에서 이 모든 것을 위해 지금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세겍줄 말씀목회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그 목회방법의 체계적인 구조와 내용을 설명하고 나누게 될 것이다.

II.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의 분열과 상처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는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로 1969년에 이민 초기에 들어온 한인들에 의해 자발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이다. 5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이고 또한 여러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가진 교회이다.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는 클리블랜드 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로 지역 한인들을 위해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함에도 지난 역사를 보면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 본 연구자가 담임목사로 2018년에 부임한 후 하나님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난 역사에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새로운 사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가 여기 남아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또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본 연구자는 기대한다. 그리고 본 논문을 통해 연구한 세겹줄(통전적) 말씀연구를 통해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가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길 기도한다.

A. 교회 분열과 상처의 역사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는 1969년 4월 27일 한인 이민자들이 클리블랜드 다운타운에 위치한 Miles United Presbyterian Church를 빌려 매월 1회씩 자발적인 예배모임을 가짐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당시 클리블랜드 지역으로 이민 온 한인들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적은 숫자의 한인들이 함께 모여 한국어로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출발했다. 교회역사 자료에는 초창기에 2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국어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감격의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는 증언이 있다.

처음에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는 목회자 없이 평신도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다가 보다 체계적으로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1973년 7월 당시 클리블랜드에 유학중이었던 이병희 목사를 초대 목회자로 청빙하였다. 담임목회자가 부임하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면서 주변의 한인이민자들이 모이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였다. 특별히 1975년에 클리블랜드에 방문한 최자실 목사(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부흥회로 교회가 뜨거운 성령체험을 하고 이병희 목사가 이후 지속적인 성령운동으로 목회방향을 설정하여 주일 낮 예배 뿐 아니라 주일 저녁예배 그리고 매주 수요기도회, 그리고 월1회 철야예배 등으로 뜨거운 성령운동을 통한 목회를 추구하였다. 이런 성령운동과 방언, 통성기도의 금요예배를 중심으로 클리블랜드 한인교회는 클리블랜드 지역의 상처받고 힘든 이민자들의 안식처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나 이런 성령운동을 중심에 둔 목회는 오히려 보수적인 성도들의 반발로 이어지게 되고 한국에서 통성기도와 방언기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장로교회의 조용한 예배를 드렸던 보수적인 성도들은 이런 성령운동의 목회에 반대하여 1977년 10월 2일 연합교회로 분리하여 나가게 되었다.¹ 이것이 클리블랜드 한인교회의 첫 번째 분열이다.

이후 1980년대 클리블랜드 지역에 여러 교단의 목회자가 들어오면서 교단별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교단별로 다른 신앙생활을 해오던 성도들이 자신의 교단에 맞게 교회가 나누어지고 세워졌으며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교회에서 분리되어 나갔다. 1981년에 감리교회가 그 당시 교회 부목사였던 정춘수 목사를 중심으로 파생되었고, 1983년에는 침례교회가 그리고 1987년에 나사렛교회(성결교단)가 파생되었고 1999년 장로교 고신교단을 중심으로 한미장로교회로 나뉘게 되었다. 사실 성도들의 믿음에 따라 교단별로 교회를 세워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수 있겠지만 그 내면을 보면 교회 안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한국에서 온 목회자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빌미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파생되는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분열은 지역에 새롭게 들어온 교단별 목회자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교회 안에 주도권싸움에서 밀린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부추겨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나간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교회의 여러 분열 중 특별히 주목할 분열은 2016년 발생되었는데 당시 담임목사의 교단(KPCA)가입이 불가능해 지자 그 담임목사가 약 50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인근에 클리블랜드 시온한인교회를 개척한 사건이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참 많은 분열과 다툼이 있었지만 그중에 특별히 2016년의 분열은 교회 안에 성도간의 법적분쟁으로 이어져 성도들에게 많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 되었다. 교단에

1.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 “교회역사”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 2018. 10. 31.
https://ckpc.us/bbs/board.php?bo_table=history accessed by 2023. 2. 14.

가입할 수 없는 자격의 목회자가 청빙되는 과정에서도 성도들안에 주도권의 문제가 있었고, 청빙된 이후 사소한 부분에 담임목사와 당회간의 갈등이 발생되었으며, 그 분쟁은 그동안 당회원이었던 장로들과 사이가 나빴던 성도들 간의 분쟁으로 확산되었다. 결국 그 담임목사는 자신을 따르는 즉 장로들과 사이가 나빠졌던 성도들을 이끌고 인근지역에 개척하여 교회 분열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클리블랜드 지역사회에 나쁜 소문과 성도들 안에 상처로 남게 되었다.

1969년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우리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를 통해 분열되고 갈라진 교회가 이 클리블랜드 지역에 9개가 된다. 지금 클리블랜드 지역에 세워져 있는 한인교회가 약 12개인 점을 가만 한다면 클리블랜드의 대부분의 교회가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에서 분열되고 파생되었다 볼 수 있다.

B. 성도들에게 남겨진 상처와 계속되는 불신

2018년 본 연구자가 부임할 당시 첫 예배에 12명의 장년만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그중 제일 젊은 성도가 61세인 나이든 성도만이 남아있었다. 5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교회이기에 교회 건물과 교육관과 주방, 친교실 등 여러 시설들은 구비되어 있었지만 성도들이 떠나고 예배당이 비어 있었다. 2018년 본 연구자가 부임했을 때 교회에 남아 있는 성도들은 끝까지 교회를 지킨 성도들이다. 교회의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여 2016년 교회가 분열될 때 교단가입 못하는 그 목사를 따라가지 않고 교회를 지킨 귀한 성도들이다. 그러나 성도들이 귀한 마음으로 교회를 지켰지만 상처와 아픔은 고스라니 남아있는 성도들이다. 분명 책임감이 강한 성도들이지만 또한 오랜 분열과 아픔의 시간을 견딘 만큼 상처가 많은 성도들이다. 그런 상처 중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불신이다. 먼저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고 또한 이어서 성도들 간의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분열로 인해 믿었던 목회자들에게 아픔을 받았기에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같이 섬겼던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았기에 지금 옆에서 함께 섬기는 성도들을 먼저 신뢰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불신의 연장선에서 남아 있던 성도들은 새롭게 부임한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자가 목회자로 처음 부임했을 때 기존 성도들에게 들었던 첫마디는 “목사님은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라는 질문이었다. 목회자가 언제든 자신들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갈등과 아픔 상처로 인해 성도들이 가진 불신의 모습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목회자가 보여야할 모습을 보지 못한 성도들이 새로 부임한 목회자의 말과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경계하는 모습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불신이다. 이런 불신은 구역모임이나 소그룹에서 본인의 진정한 삶의 내용이 나누어지지 않게 되고 나아가 자신의 기도제목을 나누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곤 한다. 그저 외형적인 삶의 대화를 나누지만 깊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나누지 못함으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붙잡게 된다. 세 번째는 새로 들어온 가정들에 대한 경계이다. 새로운 목회자 부임이후 교회에 새로운 젊은 가정들이 들어오고 그 가정들이 정착하여 새로운 사역을 섬길 때 남아있던 성도들이 함께 융화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럼으로 자연스럽게 남아있던 성도들과 새로운 성도들 간에 대화에 간극이 발생하고,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는 상태이다.

Ⅲ.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의 말씀목회의 필요성

지난 교회역사를 보면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들이 나름대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있다.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에 처음 담임목사로 섬겼던 이병희 목사는 성령운동을 중심으로 뜨거운 신앙을 추구하였다. 방언과 통성기도 그리고 성령체험과 치유사역을 중심에 두고 모든 성도들에게 방언을 받게 하였고, 그 결과 이민생활로 지쳐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위로와 힘을 얻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성령사역에 중심에 둬서 앞에서 언급했듯 성령사역에 무관심하고 반대한 성도들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다른 예로는 1990년대 담임목사로 섬겼던 김선기 목사는 제자훈련을 목회 사역의 중심에 두었다.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봉사과 섬김의 훈련을 진행했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통해 오히려 훈련을 받은 몇 명의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성도들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 목회자에서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제자훈련을 받은 성도들은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목회자의 제자가 되어 목회자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지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과도하게 목회자를 보호함으로 교회가 또 다른 분열의 상처를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그동안 교회를 섬겨온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54년이란 세월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교회 가운데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를 섬기며 그동안 교회 안에 문제와 어려움 분열과 상처를 살펴보면 결국 성도들 개개인이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 즉 말씀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지 못하는 성경적 정체성의 부재와 나아가 그렇게 홀로선 개개인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성의 부재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진단한다. 이것은 결국 성도들 각자가 그들의 삶과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A. 성경적 가치관과 사명의 부재

이정용 교수가 쓴 *마지널리티* 에는 한인 이민자들이 가지는 정체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두 세계 사이에 동화되지 못하고 ‘두 세계 사이’에서 살도록 운명지어진 주변성을 가진 존재라 정의하고 있다.² *마지널리티* 에 나오는 아시아-미국인에 대한 정체성 문제는 실제적으로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 성도들은 몸소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클리블랜드 지역은 한인 뿐 아니라 아시아인이 적고 백인중심의 사회이기에 이런 지역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은 누가 억압하거나 무시를 당하지 않아도 주눅이 들어 있는 모습이다. 이런 주변부를 살아가는 한인들에게 한인교회는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또한 스스로를 중심에 두고 싶은 욕심과 욕망을 충족해 주는 통로가 되었다.

그런데 자기 정체성의 문제는 결코 그들이 한인교회의 중심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정용 교수는 그러한 주변인으로서 ‘두 세계 사이’와 두 세계 모두 존재하는 정체성을 가진 아시아-미국인이 자기 나름의 공동체를 통해 중심성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 중심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의해줄 수 없다고 말하며³ 그 중심성은 초대교회가 그러했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적 중심’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⁴ 이는 지금까지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가 겪어온 수많은 어려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

클리블랜드에 이민 온 한인이민자들은 1969년에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를 세움으로 한인들 스스로 그들의 중심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는 주변인으로서의 이민자의 삶이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 안에서 서로 중심을 가지려는 시도와 노력으로 연결되었고, 자신의 주변성이 강화될수록 그 분쟁과 다툼은 더 커져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자신들만의 중심성을 가지려는 모습은 그동안 교회가 지역사회나 주변의 소외된 이웃, 선교지와 돌아보아야 할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관심을 쏟기보다 교회 안에서 어떤 중심을 가지는가에

2. 이정용, *마지널리티*, (서울:포이에마, 2014), 74.

3. 이정용, *마지널리티*, 102.

4. 이정용, *마지널리티*, 142.

초점을 맞추었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중심되지 못할 때 또 다른 교회로 분열되어 스스로 중심을 잡으려 시도했고, 그런 과정과 역사가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의 아픈 역사라 판단된다.

이런 이유로 바른 중심성을 가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창조적 중심을 찾아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결국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가 가진 아픔과 상처 그리고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스스로 말씀을 읽고, 연구함으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비로소 그 문제 해결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즉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 안에 있는 불신의 문제는 성도들의 정체성의 문제이다.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 안에서 그들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함으로 이민자로서 이 사회의 주변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창조적 중심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기에 본 연구자는 말씀연구를 통한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는 목회, 그리고 성도 스스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삶을 살아가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는 말씀 중심의 목회가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 목회의 대안이라 생각한다.

B. 성경적 공동체성과 섬김의 부재

클리블랜드 지역은 지역 특성상 한인들의 유입이 적고, 얼마 되지 않은 한인들 간의 관계가 중요한 지역이다. 많은 미국 중소도시의 이민교회는 작은 한인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기에 자신과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르고, 명확하다. 그리고 자신이 속해있는 관계를 중요시하다보니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들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특별히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의 역사를 보면 1981년 감리교회, 1983년 침례교회, 1997년 빌립보교회, 1999년 한미교회(고신 측) 이런 교회들이 본 교회에서 분열되어 나갔는데 그 이유가 명목상으로는 교단별로 한국에서 믿는 신앙의 뿌리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교회 안에 사소한 문제가 발단이 되어 결국 교회분열로 이어지고 그 분열이 상처와 아픔을 남긴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전적으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 즉 공동체성을 바로 가지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 몸으로 서로를 섬기기 위해 부름

받았다는 성경의 말씀을⁵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민 한인교회의 특성이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에도 반영된 것이다. 이민 한인교회의 특성에 대해 맥코믹 신학대학 김대성 교수의 “미주 한인들이 교회로 모이는 이유”란 소논문에 정리되어있는데 그 논문에 미국 한인사회에서 한인교회 출석이 높은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신앙적 배경과 민족적 특성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문화적인 요구와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이 한인교회에 있다고 정리했다.⁶ 즉 한인교회는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보다 우선되는 문화적 민족적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다.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도 클리블랜드의 첫 번째 세워진 한인교회로서 한인들이 함께 식사는 나누고, 서로 힘든 일을 겪을 때 도움을 주며, 서로의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한인 민족 공동체 특성이 있었고 또한 지금도 한인회 사무실이 본 교회에 장소를 두고 있으며, 영사관 업무나 기타 한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한 행사(한인회 한글학교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비록 이민자로 살아가는 한인들에게 든든한 도움을 서로 나누는 역할을 한 것이 잘못되거나 고쳐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부수적인 역할에 주요한 교회의 성경적 공동체성을 묻어버린 면이 있다. 우선적으로 교회로서 가져야할 성경적 공동체성과 사명을 이루지 못한 부분에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한인들의 민족공동체, 교재공동체로서의 역할에 치우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고, 교회로서 이뤄야할 사명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함께 찾지 않을 때 결국 교회는 그런 분열과 아픔의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그 동안 교회가 한 몸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에도 성도들의 자기중심성이 서로를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기에 급급했고, 문제를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 문제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급급한 모습 즉 성경적 섬김을 이해하지 못했다. *마지널리티*에는 이런 주변성을 극복하는 방법이 결국 중심성의 중심에 있는 교회가 죽어야만 주변성의 진정한 공동체가 부활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⁷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5.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4, 이후의 한글성경은 모두 개역개정판으로 사용함)

6. 김대성, 미주 한인들이 교회로 모이는 이유, (미출간 논문) 2018, 5.

7. 이정용, *마지널리티*, 187.

죽으심으로 가장 중심되신 그 분이 먼저 죽으심으로 주변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과 연결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섬김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기에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교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자들과 리더들의 십자가, 즉 섬김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회가 분열될 때 결국 리더였던 목회자가 자신을 내어놓지 못함으로 갈등이 해결되지 못했고, 결국 성경적 섬김의 모습을 보지 못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에 성경적 섬김을 먼저 보이며 또한 성경에서 함께 그 섬김을 배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C.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목회의 필요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가 지나온 역사를 통해 교회에 남겨진 분쟁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교회로 변화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즉 앞에서 언급한 성경적 가치관과 사명의 부재 그리고 성경적 공동체성과 섬김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말씀목회⁸가 필요하다. 말씀목회는 단순히 성경말씀을 읽는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다. 또한 어떤 특별한 이벤트로 경쟁하듯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며, 또한 말씀으로 소그룹을 활성화하여 성도들 간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중심의 목회는 개인과 소그룹 그리고 회중예배까지 전반적으로 이어져야 하고 통전적으로 함께 영향을 끼치게 함으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변화되어 나가는 목회를 의미한다.

그러기에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에 필요한 말씀목회는 먼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음’⁹의 시간을 가짐으로 그들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성경적 정체성과 사명으로

8. 본 연구자가 말하는 ‘말씀목회’의 개념은 말씀을 활용한 목회란 개념이 아닌 말씀을 위한 목회란 개념으로 말씀연구나 QT등 여러 가지 말씀프로그램을 목회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말씀을 나누기 위해 목회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이 목적이 되는 목회를 뜻한다.

9. 본회퍼의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에 있는 개념으로 바른 공동체를 이루는 삶의 방법이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홀로 거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바꾸고 또한 그렇게 말씀 앞에 선 그들이 함께 말씀 앞에 모여 공동체성과 섬김을 배움으로 ‘함께 있음’¹⁰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정용 교수는 그의 책에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주변적이다. 모두가 주변적이 될 때 섬김과 사랑이 우리의 규범이 되고, 섬김이 창조적으로 추구하는 가장 높은 열망이 되며 나아가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서로 종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¹¹ 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모두가 서로의 주변성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러한 변화는 말씀아래 더불어 살아가도록 말씀중심의 공동체가 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 말씀묵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창조적 중심’이 성도들안에 이뤄지게 되고,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이 모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창조적 중심’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말씀묵회는 철저하게 성경이 중심이다.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죄로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일반적으로 신학에 있어서 계시는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로 구분한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 특별계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의 심장으로 표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방법은 기록된 계시, 즉 성경에 있다고 주장한다.¹² 이것은 우리가 오직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며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누릴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이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다.¹³ 따라서 자녀인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며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는

10. 본회퍼의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 에 있는 개념으로 바른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이다.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말씀아래에 머뭇머뭇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

11. 이정용, *마지널리티*, 238.

12. Michael J. McClymond and Gerald R. McDermott, *한권으로 읽는 조나단 에드워즈 신학 (The Theology of Jonathan Edwards)*, 임요한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188.

13.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16).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삶을 실천하게 된다.¹⁴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 먼저 단독자로 성경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할 수 있다.¹⁵ 이런 이유로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 하도록 돕는 말씀중심의 목회가 절실히 요구된다.

14. 김근주, *나를 넘어서는 성경읽기*, (서울: 성서유니온, 2017), 31.

15. 김근주, *나를 넘어서는 성경읽기*, 75.

IV. 세겟줄(통전적) 말씀묵회를 위한 이론적 고찰

많은 묵회자들이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묵회를 꿈꾸며 사역을 해왔다. 그리고 그런 사역들의 결과로 인해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복음과 구원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모든 묵회방법은 그 시대와 상황마다 그리고 그 대상인 성도마다 다르게 그리고 변화되어 왔다. 모든 방법들이 변화되었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모든 묵회의 중심이 특별계시인 기록된 말씀, 성경에 의해 중심을 잡아왔다는 것이다. 즉 말씀은 언제나 어느 때나 교회가 세워진 곳, 즉 묵회자가 성도들을 양육하는 묵회의 중심이다. 말씀이 모든 묵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말씀을 중심에 두어 묵회하는 부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묵회방향과 목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성경에 나타난 말씀묵회의 모형을 찾아보고, 특별히 성경의 사건 중 요시야 시대에 일어난 부흥운동을 중심으로 그 부흥운동의 원인과 핵심 그리고 확산방향을 연구하여 말씀묵회의 모형을 고찰하고, 또한 공동체를 중심에 두며 강조했던 본회퍼 의 신학에 나타난 말씀확산과 공동체를 연구함으로써 말씀묵회의 모형을 찾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고 있는 귀납적 성경연구 방법론에서 말씀을 보다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여 공동체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A. 성경의 통전적 말씀묵회: 개인, 공동체, 예배를 통한 모형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변화시키셨다. 이것은 모든 성경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한 사람에게 전달된 그분의 말씀이 확산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부르신 모습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게 하셨다.¹⁶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불러 모세에게 율법을

16.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3:14).

주시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의 말씀으로 확산시키셨다.¹⁷ 모세가 전한 율법을 근거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게 되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다. 또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¹⁸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함께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았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군대를 쳤던 300명의 용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¹⁹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미디안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가운데 있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잠자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²⁰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²¹ 그 말씀은 결국 다윗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 신약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성령임재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상명령²²을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보인다. 개인을 먼저 부르시고, 그 개인에게 말씀을 주신 후 그 말씀이 공동체로 확산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확산된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안에서 이뤄지고 실현되었다. 이것은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개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공동체로 확산되며, 공동체에 허락된 말씀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변화는 순서가 아닌

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출애굽기20:22).

18.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수아1:17).

19.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사사기7:9).

20.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 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상3:1).

21.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상3:10).

22.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1:8).

전체가 함께 통전적으로 진행되는 오직 성령의 운행과 주도하심으로 이뤄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전할 자들, 즉 그분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뿐 아니라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길 원하신다. 성경에 이런 예는 수 없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요시아 왕 시대에 말씀을 발견함으로 다시 세워진 이스라엘의 모습과 초대교회에 골로새서에 나타난 말씀으로 공동체가 세워지는 부분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이 어떻게 개인으로 시작하여 더 나아가 개인과 공동체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공동체로 확산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바울서신에서 초대교회가 역동적인 성장을 이룰 때에 그 중심에 바로 서야 할 목회의 방향을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으로 살펴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 찾고자 한다.

1. 요시아 시대에 발견된 말씀으로 다시 세워진 이스라엘

앞에서 언급한대로 성경에는 말씀이 개인을 통해 공동체로 확산되는 수많은 예들이 있다. 그 중 요시아 왕 때 일어났던 부흥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요시아 부흥운동이 있게 된 배경에는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 시대를 이해해야 한다. 므낫세 왕은 열왕기사관에 있어서 가장 악하고 타락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남 유다의 멸망의 원인도 열왕기는 므낫세 왕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²³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일월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경배하는 행위를 했다. 하나님이 가증히 보시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했으며 외부적으로는 자신의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이 앗수르에 대항해 싸운 것에 반해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대국이었던 앗수르의 비위를 맞추는 친앗수르 정책을 취함으로 물질적인 그리고 외형적인 안정만을 취하려 했다. 이런 므낫세 왕의 모습은 지금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인이민교회가 가지는 함정과 같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중심을 두어야 함에도 오히려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는 이민교회의 모습과 또한 세상의

23.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와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열왕기하24:3).

성공과 부를 추구하며 이민자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름의 부와 안정만을 취하려는 이민자들의 모습은 므낫세 왕이 보인 모습과 다르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도 지난 50년이 넘는 역사를 보면 이런 므낫세 왕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이후 아몬왕의 2년의 짧은 통치 후 요시야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 요시야왕은 어린나이임에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평가를 이루고 있다.²⁴ 이후 성인이 된 요시야왕은 새롭게 나라를 변화시키고 요시야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었다. 그 부흥운동의 시발점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요시야왕은 왕이 스스로 먼저 성전을 수리하고 정비하려는 마음을 가졌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듯 그동안 잊혀져있었던 말씀을 요시야 왕이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요시야 왕의 태도에 대해 열왕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²⁵

요시야는 왕으로 자신의 체면과 위치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들려진 말씀 앞에 철저히 반응하며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듣게 하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헌신함으로 이방신상과 일월성신 우상을 각 지역에서 부수고 파괴함과 동시에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여 전에 없었던 성대한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모습²⁶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요시야 부흥운동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예루살렘 성전의 보수로부터 시작된 말씀의 발견이 요시야 왕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뿐 아니라 그 영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쳐 각 지역에 있었던 모든 산당과 우상을 깨뜨리며, 우상 숭배하던 자들의 무덤에서 해골을 다시 꺼내 불태우는 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전달되었고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경배하는 유월절 제사를 지키게 되었다.

24.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22:2).

25. 열왕기하22:11.

26.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열여덟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열왕기하23:22~23).

이 요시아의 부흥운동은 말씀 앞에 ‘홀로 있음’²⁷을 이룬 요시아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²⁸하여 확산이 되고 그 확산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유월절을 드림으로 ‘함께 있음’²⁹을 이룬 대표적인 모습이라 생각된다. 이 3가지 ‘홀로 있음’과 ‘말씀을 선포’와 ‘함께 있음’이 통전적으로 이어졌기에 요시아 부흥운동은 암울했던 므낫세 시대를 뛰어 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된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2. 바울서신에 기록된 바른 목회 :골로새서 3장 16절을 중심으로

바울서신에서 목회에 관한 서신을 목회서신이라고 하며, 디모데 전, 후서 디도서가 있다. 그 편지들은 수신자가 목회자로 목회에 관련한 바른 길이 무엇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기에 목회서신으로 불리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서신서에는 목회에 관한 내용이 없지는 않다.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골로새서는 이단이 들어와서 혼란하고 어려운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규범과 목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³⁰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1~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 그리고 3~4장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서 지켜야 할 삶의 규범들이 정리되어 있다.³¹ 이 중 특별히 3장 16절과 17절은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관한 부분 중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한남대학교 정용한 교수의 “다문화 사회를 위한 골로새서의 통전적 읽기와

27. 본회퍼의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 에 있는 개념으로 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홀로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8. 본 연구자가 주장하는 세겟줄의 한 부분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만나는 장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 예배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개인의 말씀이 공동체의 말씀으로 확산된다는 개념이다.

29. 본회퍼의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 에 있는 개념으로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 말씀 아래에 머뭇머뭇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이다.

30. Martyn Lloyd-Jones, 골로새서 강해, 강철성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74.

31. 매일 성경을 큐티하는 구약장이, 51. 골로새서 개요, 2020.7.10.
<<https://otfreak.tistory.com/entry/51-골로새서-개요>> accessed by 2023. 2. 20.

신학적 주제”란 논문을 보면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을 가르치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며 또한 이것은 같은 구성원들(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일치가 세례나 외형적인 형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만유되심과 만유 안에 내주하심 때문이며, 또한 함께 주어진 말씀의 풍성함 때문이라 말하고 있다.³²

이것은 골로새교회가 당시 다문화 사회였던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로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른 문화, 다른 사고방식으로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었고, 특별히 이단이나 다른 사상의 유입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는 신앙과 만유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뿐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풍성함이 있을 경우에 그런 외적인 상황 즉 다문화와 이단의 공격 속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도바울은 골로새서를 마치며 자신의 편지를 회람하고,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도 함께 읽으며³³ 말씀 안에 거하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3단계의 신앙생활의 모범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이다.³⁴ 이 구절은 사도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른 목회 방향이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목회는 단계별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선은 각 개인의 심령과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함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 풍성한 말씀을 공동체에 확산하라는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말씀의 확산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요시야 종교개혁의 원리와 동일하며 지금 한인이민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른 목회방안이다.

후기 종교개혁가인 슈페너는 이처럼 성경에 기초한 목회적 원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의 의 저서 경건한 열망에서 이 골로새서 3장 16절을 근거로 교회의 내적 갱신을 이루는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는 교회

32. 정용한, "다문화 사회를 위한 골로새서의 통전적 읽기와 신학적 주제" 신학논단,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제77집, 2014), 283.

33.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골로새서 4:16).

34.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16).

갱신에 있어서 말씀생활의 회복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이 선행될 때 교회가 갱신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³⁵ 그리고 그는 구체적으로 개인이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며,³⁶ 또한 공식 예배 중 특별히 말씀이 차례차례 읽도록 해야 하고,³⁷ 세 번째는 초대교회의 사도적인 모임을 재도입하는 것이라 주장한다.³⁸ 여기서 말하는 사도적인 모임은 예배와는 별도로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준비된 성도가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는 일종의 토론 모임이다. 지금 우리 시대에 소그룹모임과 같은 모양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한 스펜어의 교회 갱신 방향은 이전 요시야 시대 부흥운동이 일어난 모양과 같은 것이며 결국 바른 목회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사도바울은 골로새교회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함으로 누리는 축복과 은혜, 그리고 그 풍성함을 나누고 가르치며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런 통전적인 과정이 초대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길이라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바울의 주장은 지금 모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길이 될 것이다.

B. 본회퍼 신학의 통전적 말씀목회: ‘홀로 있음’ 과 ‘함께 있음’

디트리히 본회퍼는 독일이 낳은 행동주의 신학자이다. 반나치 저항운동에 가담하여 히틀러의 독재정권과 싸우다가 1943년 4월 5일 비밀경찰(게슈타포)에 체포되고 1945년 4월 9일에 베를린에 있는 플로센뷔르크 강제수용소에서 39세를 일기로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진 신학자이다.³⁹ 그는 17살에 튀빙겐 대학에 입학하고, 그 다음해 베를린대학 신학부에서 공부를 했던 수재였다. 그가 21살 때 베를린 대학 신학부 졸업논문으로 제출한 *성도의 교제 (Communio sanctorum)*는 우수한 논문으로 많은 신학자에게 예찬을 받았다. 칼바르트도 “하나의 신학적 기적”이라고 평가했었다.⁴⁰ 이후 1933년 히틀러가 독일 제3제국의 원수가 되고

35. P. J. Spener, *경건한 열망*, 모수환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9), 99.

36. P. J. Spener, *경건한 열망*, 100.

37. P. J. Spener, *경건한 열망*, 101.

38. P. J. Spener, *경건한 열망*, 101.

39. 전중현, *본회퍼의 생애와 사상* (서울: 좋은땅, 2020), 171.

독일이 민족주의적 국가사회주의로 치닫고 있을 때 본회퍼는 핑겐발트 신학교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토대로 *말씀아래 더불어 사는 삶*⁴¹ (*Gemeinsames Leben*)을 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일깨우고 반나치 투쟁과 경건의 산물의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특별히 이 신학교 공동체 생활기간 본회퍼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발견케 하였고 그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모든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3가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과 연결되며, 다른 사람에게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고 나아가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공동체로 연결되어 진다는 것이다.⁴² 이런 본회퍼의 이 고백은 지금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바른 모형이다. 즉 개인의 신앙이 결국 공동체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신념인 것이다. 이러한 신념을 기초로 그는 그의 삶을 살았고, 결국 순교자의 자리로 나아갔다. 우리도 역시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로 이어지는 목회를 꿈꾸고 있다.

1.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 성도의 교제를 중심으로

본회퍼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강조했다. 그의 이 책에는 말씀 자체가 사회성과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이뤄지는 공동체가 교회이란 점을 강조했다. 특별히 *성도의 교제* (*Communio sanctorum*)에서 ‘교회를 인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뜻’으로 정의했다.⁴³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올바른 공동체적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설립되며 이를 위해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⁴ 인간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오직 역사 속에서

40. 전중현, *본회퍼의 생애와 사상*, 35.

41. 이 책은 보편적으로 *성도의 공동생활*로 알려져 있지만 2010년에 책이름이 새롭게 변경되었다. 독일어 원제목은 *Gemeinsames Leben* 이지만 영어는 Fortress 출판사에서 *Life Together* 이다

42. Dietrich Bonhoeffer,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 광계일 역 (서울: 빌리브 2010), 21.

43. Dietrich Bonhoeffer, *성도의 교제*, 유석성, 이신건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125.

44. Dietrich Bonhoeffer, *성도의 교제*, 125.

시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은 보여 질 수 있고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회퍼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말씀하시며 행동⁴⁵하시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공동체)라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교회가 가져야할 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 역사가운데 보이기 원하신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인데, 그렇다면 교회가 추구해야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교회가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 뜻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 수 있고, 오직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 지금도 역사하신다면 분명 지금 이 땅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본회퍼는 “말씀은 처음만 아니라 끝까지 사회적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⁴⁶ 이것은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관계성, 사회성 즉 공동체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은 개인에게만 절대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나아가 공동체로 확산되며, 공동체가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사회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말씀 그 자체 안에 사회성,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공동체로 활성화 된다고⁴⁷ 말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뤄지며 그 성령의 역사도 역시 말씀이 공동체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계속 일하신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본회퍼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 통로로서 공동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부분이 본회퍼의 신학과 다른 신학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또한 성령의 역사를 세속적인 결과에 초점 맞추지 않고 오직 말씀이 공동체로 활성화하는 역사에 초점 맞춤으로 개인적인 필요나 요구에 성령님의 역사를 인용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성령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회퍼는 *성도의 교제 (Communio sanctorum)* 제5장 ‘성도의

45. Dietrich Bonhoeffer, *성도의 교제*, 125.

46. Dietrich Bonhoeffer, *성도의 교제*, 140.

47. Dietrich Bonhoeffer, *성도의 교제*, 143.

공동체'에서 결국 말씀은 각 개인 성도들을 공동체 즉 교회로 모이게 한다고 주장한다.⁴⁸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말씀은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경험적인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객관적인 정신(영혼, 인격)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더욱 역사적인 교회 공동체로 구체화 되고, 또한 교회가 내연적, 외연적으로 세워지게 되기 때문이다.⁴⁹ 이런 본회퍼의 생각은 결국 교회가 모이게 되는 원동력은 개인의 필요나 요구가 아닌 성령의 역사 즉 말씀이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교회 안에 일하신 결과이기에 교회의 출발점인 말씀의 역동성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는 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본회퍼는 다수가 모인 '집단인격'(교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한 개인'처럼 실재화 한다고 말하고 있다.⁵⁰ 이것은 개인은 타자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고 그 관계성 안에서 인격이 형성되듯,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형성된 그리스도적 인격 관계를 통한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요구는 한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닌 한 공동체 즉 교회도 동일하게 그 책임이 요구되어 공동체 또한 세상의 부조리와 문제에 대해 눈을 감는 것이 아닌 한 인격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본회퍼의 신학은 그의 인생에 그대로 적용되어 당시 독일사회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 즉 사회참여적인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인격은 말씀을 통하여 개인의 책임과 판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동체로 확산되어지게 된다는 것이며 그리고 이 과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안에서 요구되어 진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변화에서 시작되어 교회의 변화로 반드시 나아가게 된다 주장하였다. 그러기에 본회퍼는 모든 교회의 원천을 말씀으로 주장한다.⁵¹

2.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 :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을 중심으로

본회퍼는 1935년부터 1937년까지 경험한 핑겐발트 신학교에서의 새로운

48. Dietrich Bonhoeffer, *성도의 교제*, 201.

49. Dietrich Bonhoeffer, *성도의 교제*, 204.

50. Dietrich Bonhoeffer, *성도의 교제*, 83.

51. Dietrich Bonhoeffer, *성도의 교제*, 218.

공동체 운동을 이후 고백교회 목회자 후보생들과 함께 실현해 보고자 했다. 그러나 나치에서 이를 불법화하고 그 목회자 후보생들을 군에서 징집되어 중단되게 된다.⁵² 그러나 그 공동체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이란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은 공동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아래에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그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 책의 목차를 보면 “공동체 삶에 대한 묵상”, “더불어 사는 하루에 대한 묵상”, “홀로 거하는 하루에 대한 묵상”, “섬김에 대한 묵상”, “죄 고백과 성만찬에 대한 묵상” 이 목차들만 봐도 그 공동체의 중심은 말씀에 있고, 말씀의 이해와 묵상이 그런 공동체 훈련을 가능하게 한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본회퍼는 각 장을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무리 역시 “말씀아래서의 공동생활”을 강조하며 마무리 한다. 즉 이 책의 구성과 내용 모두 말씀과 공동체의 관계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본회퍼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밖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건네지는 말씀”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⁵³ 그리고 말씀은 일차적으로 밖에서 그리고 건네지는 말씀에 사로잡힌 후 다른 사람에게 확산된다. 그래서 본회퍼는 말씀이 이러한 속성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겐 반드시 말씀을 전해줄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⁵⁴

이 부분에 있어서 본회퍼는 “건네지는 말씀”을 통해 형성된 그리스도적 인격은 또 다른 타자에게 그리스도적 인격이 전해지도록 이어지기에 결국 말씀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말씀 안에 본질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즉 본회퍼에게 있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면 갈수록 더욱 공동체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을 통해 온전한 공동체가 가능하다면 교회 안에 함께 말씀을 나눌 방법들을 모색해야 하고, 본회퍼는 그 방법을 “예배공동체”(gemeinsamen Andacht)⁵⁵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예배공동체는 본회퍼에 의하면 “홀로 있음”과 분리되지 않고 연결하여 “함께 있음”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두 가지 핵심 가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서 가져야 할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가 믿음의 자립을

52. 전중현, *본회퍼의 생애와 사상*, 89.

53. Dietrich Bonhoeffer,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 23.

54. Dietrich Bonhoeffer,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 21.

55. Dietrich Bonhoeffer,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 68.

이뤄낼 때 공생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즉 “홀로 있음” 과 “함께 있음”은 신앙공동체가 추구해야할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 것이다. 따라서 본회퍼는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 때 비로소 홀로 거할 수 있고, 또한 홀로 거하는 사람이 공동체에서 더불어 살 수 있다”⁵⁶ 라고 말하고 있다. 본회퍼가 주장하는 ‘홀로 있음’은 성도가 말씀 앞에 침묵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주인의 말을 경청하기 위한 침묵이며, 나아가 세상을 향하던 자세를 옮겨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⁵⁷

특별히 *말씀아래 더불어 사는 삶*의 제3장 홀로 거하는 하루에 대한 묵상에서 ‘홀로 있음’에 있어서 침묵⁵⁸으로 나아가는 3가지 일정이 있는데 바로 ‘말씀묵상’ ‘기도’ 그리고 ‘중보’라 말하고 있다.⁵⁹ 그 중에서 ‘말씀묵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입니다”⁶⁰ 라고 말하며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 먼저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옳습니다”⁶¹ 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음’을 누리기 위해선 반드시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하고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행하고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기도하게 하시는지 기도하는 시간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본회퍼가 말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과 본문의 내용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홀로 있음’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어서 개인이 먼저 말씀 앞에서 침묵으로 홀로 있음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른 이들을 초대할 수 있고, 결국 그런 말씀의 확산이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고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이 분리됨 없이 동시에 강조됨으로 공동체(교회)가 섬김의 길,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⁶² 이러한

56. Dietrich Bonhoeffer,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 142.

57. Dietrich Bonhoeffer,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 146.

58 침묵은 본회퍼의 *말씀아래 더불어 사는 삶* 3장의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투쟁하며 십자가를 지셨듯 각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 역시 어느 누가 대신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각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싸움이 있고 이 싸움 앞에 홀로 거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59. Dietrich Bonhoeffer,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 149.

60. Dietrich Bonhoeffer,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 152.

61. Dietrich Bonhoeffer,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 152.

62. Dietrich Bonhoeffer,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 182.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은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 뿐 아니라 교회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이며, 따라서 교회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보다 말씀 앞에 집중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회퍼의 주장이다.

따라서 본회퍼는 *말씀아래 더불어 사는 삶*이란 책을 통해 개인이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음’을 통한 결과가 ‘함께 있음’이며 이 과정이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란 사실을 정확하게 나타낸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예배생활은 결국 섬김으로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라 보고 있다.

C. 귀납적 성경연구를 통한 말씀목회의 모형

귀납적 성경연구방법은 성경 본문의 증거와 역사적 실체로부터 본문의 의미를 도출하여 성경 본문의 본질적인 의미에 집중하고, 보다 정확하고 근원적인 해석을 이루는 방법론이다.⁶³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자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성경본문의 배경과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여 성경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계시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찾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 그러기에 각 개인이 그리고 공동체가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선 반드시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에 담겨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성경의 의미를 주어진 주제와 뜻으로 해석하는 연역적 방법이 아닌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실마리를 찾아 귀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결국 말씀을 중심에 둔 교회의 모습이다.

1.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납적 성경연구

귀납적 성경연구는 본문을 스스로 관찰하고 해석함으로 다른 사람의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⁶⁴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63. Hans Finzel, *귀납법적 성경 연구 실제-성경해석의 새로운 접근방법*, 이종록 역 (서울: 두란노, 1994), 35.

64. David R. Bauer & Robert A. Traina, *귀납법적 성경연구*, 윤철호 역 (서울: CLC, 2014), 41.

것은 성경을 올바로 관찰하는 것이며, 그 관찰은 정해진 틀과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 성경 안에서 자신이 본 것에 대한 이해와 의미를 부여 하는 과정이다.⁶⁵ 즉 귀납적 성경연구는 개인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 의미를 발견하고, 나아가 그렇게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삶에 적용해 나아가 성경연구 방법인 것이다.

귀납적 성경연구에 대해 트레이나는 “성경의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논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진리를 정의하고 적절한 단계에 따라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⁶⁶이라고 했고, 핀젤은 “귀납적 성경연구는 성경 본문의 증거와 역사적 실체로부터 본문의 의미를 도출하여 성경 본문의 본질적인 의미에 집중하게 하고, 보다 정확하고 근원적인 해석을 이루는 방법론이다”⁶⁷ 라고 정의 했다. 그래서 핀젤은 귀납적 성경연구가 성경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의미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찾아 삶의 변화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성경연구 방법이라 주장하였다.

이와 반대로 연역적(deductive) 성경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방법은 기본적인 전제에서 시작하여 다른 전제를 지지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어 본문을 읽는 방법론이다.⁶⁸ 즉 연역적 성경연구는 어떠한 전제를 세우고, 그 전제에 비추어 무엇이 타당하고, 무엇이 그른지 밝히는 과정이다. 그러기에 어떤 본문에 접근할 때 전제에서 시작해서 다른 전제를 지지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려는 의도로 본문을 읽고 연구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이 스스로 성경의 의도를 발견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닌 주어진 성경의 의도와 주제 안에 갇혀 그 관심을 지지해 줄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⁶⁹ 물론 연역적 성경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뜻과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에 있어서 자신이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연역적 방법보다, 선제된 조건이나 의미를 가지지

65. Walter A. Henrichson, *평신도 성경해석 지침*,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193.

66. Robert A. Traina, *귀납적 성경연구*, 김기천 역 (대구: 보문출판사, 1998), 9.

67. Hans Finzel, *귀납법적 성경 연구 실제-성경해석의 새로운 접근방법*, 이종록 역 (서울: 두란노, 1994), 35.

68. Hans Finzel, *귀납법적 성경 연구 실제-성경해석의 새로운 접근방법*, 36.

69. David R. Bauer & Robert A. Traina, *귀납법적 성경연구*, 윤철호 역 (서울: CLC, 2014), 35.

않고 성경에서 강조하시는 의미를 찾는 귀납적 방법이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내 생각이 강화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아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자세에서 시작된다. 이런 의미에서 귀납적 성경연구는 말씀 안에서 의미와 뜻을 찾는 것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이 허락하신 의도로 자신을 바꿔나가는 과정을 돕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자신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귀납적으로 성경에서 발견될 때 힘을 얻게 된다.

귀납적 성경연구가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이끈다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특별계시가 ‘글’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보편적인 언어로 특별계시인 성경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있음을 의미하고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자신에게 주시는 계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연구가 목회자에게만 해당한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모든 성도들 즉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고 계시를 받아야 한다.⁷⁰ 왜냐하면 삶의 변화는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자세는 말씀을 연구함으로 각자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발견하고, 말씀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세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적당히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귀납적 성경연구로 말씀 안에서 여러 사실들을 찾아내어 해석의 실마리를 잡아가야 한다.⁷¹ 이를 통해 자신에게 하나님이 직접 허락하시는 계시를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힘을 얻게 된다.

2.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귀납적 성경연구

신약성경은 교회를 에클레시아(ecclesia)로 부른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헬라어 ‘밖으로’란 에크(ek)와 ‘부르다’란 카레오(caleo)의 합성어로 ‘부름 받은, 소집된 모임’이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고대 도시국가 아고라의 ‘민중회의’에서

70. 김근주, *나를 넘어서는 성경읽기*, (서울: 성서유니온, 2017), 143.

71. 이재천, *개인 성경 연구 핸드북*,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2003), 44-45.

비롯된 것이다.⁷² 여기서 부름이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이고 그 부름을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름을 알고 이해하며 해석할 때 새로워질 수 있다. 즉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은 성도들의 인격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부름을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부름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결국 성경이다. 하나님의 특별계시인 성경을 통해 교회는 새로워지고, 변화된다. 또한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귀를 확장한 것(요일 1:3)⁷³ 같이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존 파이퍼 목사는 그의 책에서 “사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던 영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함께 경험 한다”⁷⁴ 라고 표현했다. 즉 교회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즉 구약과 신약이라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가야 하며 또한 이를 통해 성도들의 삶에 신앙의 핵심을 실천되도록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서 온전한 사귀를 누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귀납적 성경연구가 공동체를 변화시킬 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귀납적 성경연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안에서 삶을 변화시켜나갈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각 성도의 변화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연합되어 교회공동체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귀를 누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귀납적 성경공부를 통해 그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 그리고 부르신 사명을 찾을 때 반드시 그 공동체는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세겟줄(통전적) 말씀목회의 이론을 고찰했다. 성경에서 나타난 말씀목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요시야 왕 한 사람에게 임한 말씀은 결국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 사도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권면한 핵심은 각 성도가

72. Hans Küng, *교회*, 정지런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14), 41.

7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일 1:3).

74. John Piper, 존 파이퍼의 *성경읽기 (Reading the Bible Supernaturally)*, 홍종락 역 (서울: 두란노, 2017), 24.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풍성함으로 서로 화답하며 격려하고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본회퍼의 신학에서도 결국 말씀이 중심되어 공동체가 세워져야 하며 말씀 앞에 홀로 있음을 이룬 성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함께 있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귀납적 성경연구도 개인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며 적용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모든 이론을 정리하고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른 말씀 목회는 세겟줄 말씀목회이다.

V.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의 세겹줄(통전적) 말씀목회

이제 앞장에서 다루었던 말씀목회의 이론적 고찰을 기초로 하여 말씀 중심의 목회인 세겹줄(통전적) 말씀목회를 제시한다. 세겹줄(통전적) 말씀목회는 귀납적 성경연구 방법론을 확장하여 말씀연구가 한 개인의 묵상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확산되게 하는 방법론이며 이 말씀의 확산을 목회로 접목하는 방법론이다. 여기에는 통전적(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목회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목회방법론은 전체적으로 말씀과 만나는 세 가지 방법 즉 세겹줄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한 성도 개인이 말씀 앞에 ‘홀로 있음’으로 말씀과 대화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목회자가 먼저 성도들과 함께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홀로 있음’으로 해석하여 회중 예배에서 설교로 ‘함께 있음’을 선포하는 과정이며 세 번째는 회중 예배 후 소그룹으로 서로가 받은 말씀을 나눔으로 공동체 안에 말씀으로 ‘함께 있음’을 확산하는 과정이다. 또한 이 세겹줄 방법은 세부적으로 다시 세겹줄을 요구되는데 개인이 말씀 앞에서 귀납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3단계로 이뤄진 개인 말씀연구의 세겹줄이고 또한 그 안에 특별히 관찰에 있어서 세부적인 3단계 세겹줄이 필요하다.

세겹줄(통전적) 말씀목회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세겹줄(통전적) 말씀목회				
게시되는 말씀(홀로 있음)			선포되는 말씀(회중예배)	나누는 말씀(함께 있음)
1단계	2단계	3단계		
말씀 관찰	체계적 읽기	말씀 흐름 파악	‘홀로 있음’으로 목회자가 받은 말씀	‘홀로 있음’이 용납되는 공동체
		문단구분		
		핵심구절 찾기		
	꼼꼼히 읽기	하나님 찾기		
		강조점 찾기		
		새로운 것 찾기		
	1인칭 시점 읽기	하나님 관점	회중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	말씀으로 ‘함께 있음’을 발견
		주인공 관점		
		제3자 관점		

말씀 해석	문맥에 적합한 해석	성령의 임재로 강화된 말씀	‘함께 있음’에 초대
	하나님 중심적 해석		
	본문에 근거한 해석		
말씀 적용	말씀중심의 적용		
	나 중심의 적용		
	구체적인 적용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세겹줄은 계시되는 말씀 즉 각 개인이 말씀 앞에 ‘홀로 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즉 한 주간 동안 담임목회자가 성도들과 같은 본문으로 연구하며 기도함으로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는 회중예배, 그리고 나누는 말씀 즉 소그룹과 공동체 구역모임으로 한주간 자신이 받은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 나누는 세겹줄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세겹줄은 첫 번째 세겹줄을 보충해주는 세겹줄로 계시된 말씀(홀로 있음)을 위한 세겹줄, 선포되는 말씀(회중예배)을 위한 세겹줄, 마지막으로 나누는 말씀(함께 있음)을 위한 세겹줄이다. 그중에 계시된 말씀(홀로 있음)을 위해 요구된 세겹줄인 말씀 관찰, 말씀 해석, 말씀 적용을 위한 세겹줄들이 있고, 관찰을 위한 세겹줄 안에 방법 세겹줄, 그리고 그 방법 안에 구체적인 내용 세겹줄이 존재하는 형태이다.

이런 세겹줄 말씀목회는 통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이 세 겹줄은 순서나 절차가 아닌 서로 함께 동시에 이뤄지며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나누는 말씀(함께 있음)을 통해 계시된 말씀(홀로 있음)과 선포된 말씀(회중예배)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또한 각 개인이 받은 계시된 말씀(홀로 있음)이 그저 자신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선포된 말씀(회중예배)과 나누는 말씀(함께 있음)에 영향을 주게 되기도 한다. 즉 이 세 겹줄 말씀목회는 이 3가지가 서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함께 확장되어가는 통전적인 목회인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세겹줄 말씀목회 방법론은 통전적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 중첩되고 통전적으로 연결된 이 세겹줄 목회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A. 말씀 앞에 홀로 있음 :개인 말씀연구

세겅줄(통전적) 말씀묵회를 위해 성도들이 말씀 앞에 ‘홀로 있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을 먼저 나누어야 한다. 이를 위해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는 주보 뒷면에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기 위한 본문을 미리 배포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성도들은 말씀묵상과 연구를 위한 귀납적 성경연구 방법에 대해 훈련을 했다. 개인 말씀연구는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가 필요하며 이 중 가장 중요한 관찰을 위해 체계적 읽기, 꼼꼼히 읽기, 그리고 1인칭 시점으로 읽기를 강조한다.

1. 세겅줄 개인 말씀연구1 : 관찰

a. 말씀 관찰1 : 체계적 읽기

체계적 읽기란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기본 문단구조를 개인적인 관점에서 정리하는 단계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체계적이며 논리적이신 분이시기에 성경 역시 이 창조물들과 같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구조와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 중 한가지이다. 체계적 읽기의 방법으로 성경 안에 있는 체계성을 파악하면 그 말씀을 읽는 성도 안에 새로운 말씀으로 재창조된다. 그래서 로버트 트레이너는 말씀의 재창조 과정은 독자가 성경에 기록된 언어를 살아 있는 언어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메시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 있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임을 말했다.⁷⁵ 이미 존재하는 말씀 안에 담긴 체계성을 발견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재창조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본문 안에서 가지는 체계성을 발견하게 되면 그 말씀 중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핵심구절⁷⁶을 파악하게 된다. 이것은 그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세겅줄 개인 말씀연구 관찰에 있어서 체계적 읽기는 총 3단계로 이뤄진다.

75. Robert A. Traina, *귀납적 성경 연구*, 김기천 역 (대구: 보문출판사, 1985), 68.

76. 핵심구절은 체계적 읽기를 통해 전체 내용을 문단으로 나누고 그 내용을 파악한 후 그 본문에서 가장 중심 되는 한 구절을 정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으며 본문의 핵심구절을 정하는 과정을 통해 그 본문이 가진 의미와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전체 본문 내용을 몇 차례 읽으며 말씀 흐름을 파악하는 단계, 그 본문의 체계성을 찾아 문단을 구분하는 단계, 마지막으로 그 체계성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구절을 찾는 단계이다. 그리고 그 핵심구절을 찾아 그 본문의 가장 중심사상을 정리하고 다시 그 본문을 읽게 되면 본문의 전체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⁷⁷ 이런 체계적 읽기는 반복 연습과 훈련을 통해 더 많은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게 한다. 예를 들어 체계적 읽기의 구체적인 방법을 마태복음 8장 14~17절의 말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마태복음 8장 14~17절	체계적 읽기로 파악된 문단 구조
14.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1. 문단을 3개로 파악 (14~15 / 16 / 17) 장모를 고치심과 많은 사람을 고치심 그리고 그 치유의 의미 / 3가지로 구분
15.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2. 문단을 2개로 파악 (14~16 / 17) 예수님의 치유와 그 치유의 의미 / 2개로 구분
16.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3. 문단을 2개로 파악 (14~15 / 16~17) 예수님이 장모를 고치심과 많은 사람들을 고치심 / 2개로 구분
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본문은 4절 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 이 내용 안에서 위에 제시한 것과 같은 서로 다른 체계성을 찾는 성도들이 있다. 다른 체계성으로 이해한 것이다. 우리가 그 본문을 읽을 때 성령님이 어떤 것에 초점을 두게 하시는지에 따라 이런 체계성으로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 이런 체계성을 정리하는 것에 있어선 결코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성도가 자신 나름의 체계성으로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파악하여, 각자 나름의 말씀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런 체계적 읽기는 성경을 단순히 읽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보는 관점에서 그 성경 안에서 나름의 체계를 찾고, 정리하는 관점으로 바꾸게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중심 되는 핵심구절을 찾고 정리함으로 이 본문이 가지는 정확한 의미를 각자마다 다르게 찾아갈 수 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의미로 전달되지 않기에 자신 나름의 의미를 체계적

77. Walter A. Henrichson, *평신도 성경해석 지침*,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196.

읽기에서 발견하고 서로 함께 나눔으로 보다 깊고 정확한 성경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다. 즉 어느 성도는 14절 말씀을 핵심구절로 정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를 바라보심으로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파악할 수 있고, 또 어떤 성도는 15절 말씀을 핵심구절로 정하여 치유 받은 자로서 섬겨야 함을 주장할 수 있고, 어느 성도는 16절 말씀을 핵심구절로 정하여 많은 사람을 거절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성도는 17절 말씀을 핵심구절로 정하여 구약의 예언의 성취에 집중 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관점이 다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파악한 것이기에 어느 것이 틀렸고 나의 것이 더 좋다 말할 수 없다. 모든 성도들이 각각 자신들의 보는 관점에 따라 의미를 다르게 부여함으로 공동체는 다양한 관점의 성경을 함께 읽게 되는 것이다. 즉 체계적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그 발견한 보물을 가지고 서로의 보물을 비교해보듯 함께 나눈다면 그런 소그룹은 보다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소그룹이 될 것이다.

b. 말씀 관찰2 : 꼼꼼히 읽기

구체적인 말씀 관찰을 위해 두 번째로 꼼꼼히 읽기를 제시한다. 꼼꼼히 읽기란 한 구절, 한 단어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깊은 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한다. 이것은 성도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본문 안에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찾으려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한다. 마치 숨은 그림을 찾기를 하듯 문맥과 내용 안에 들어 있는 말씀의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꼼꼼히 읽기는 ‘하나님 찾기’, ‘강조점 찾기’, ‘새로운 것 찾기’를 통해 말씀을 연구한다. 첫 번째 하나님 찾기는 그 본문 속에서 숨어계신 하나님의

꼼꼼히 읽기로 발견한 것 (하나님, 강조점, 새로운 것)

1. 하나님 찾기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가르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

- 1) 장로들의 유전보다 우선되는 말씀
 - 2) 이적과 기적보다 우선되는 말씀
-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지 말라고 경고(36)
그 이유? 신앙인의 핵심 - 우선순위

모습을 찾음으로 그 사건과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 강조점 찾기는 그 본문이 내용에서 강조하는 것, 즉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나 구절, 그리고 대조하거나 비교하는 표현 등으로 말씀 안에서 강조되어 지는 본문과 내용을 찾음으로 본문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 귀신들린 딸을 둔 여인에게 인정 없는 모습으로 연기하시는 예수님
- / 믿음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닫혀있는 것을 열기 원하시는 예수님

- 마음이 닫힌 장로들
- vs 귀와 입이 닫힌 자(귀 먹은 자 치유)

2. 강조점 찾기 (비교, 대조, 은유 등)

우릴 깨끗하게 하는 것 vs 더럽게 하는 것

- 들어오는 것 vs 나가는 것

환경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안의 마음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

누가 은혜를 받는가?

-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장로
- vs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수로보니게 여인
- 말 잘하고 잘 듣는 장로
- vs 귀먹고 말 더듬는 자

3. 새로운 점 찾기

예수님의 인정 없으신 모습

- 귀신들린 딸을 더 치유하기 원하시지만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기 원하시는 모습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귀먹은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 치유의 대상이 자신으로 인해
괜한 오해에 빠지지 않기 원하는 모습
-

새로운 것 찾기는 흔히 성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은 안다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도록
의미를 다시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꼼꼼히 일기를 통해
발견한 것을 왼쪽에 있는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마가복음 7장은 흔히 정결논쟁이라
불리는 예수님과 종교지도자들과의
논쟁부분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귀신들린
이방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행동으로
진정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하나님
찾기)이다. 그리고 부정하지 않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은 말 잘하고
잘 듣다 생각하는 당시 장로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개와 같이 부정하다 생각하며
은혜를 구하는 여인과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강조(강조점 찾기)하시는
말씀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본문에서 전혀

보지 못하던 예수님의 인정 없으신 모습은 그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새로운 것
찾기)이다.

개인 말씀연구 꼼꼼히 읽기의 하나님 찾기, 강조점 찾기, 새로운 것 찾기는
누가 많은 것을 찾았는가를 경쟁하는 것이 아닌 성도들이 서로 자신이 찾을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읽고 이해한 만큼 찾은 후 그것을 함께 소그룹에서 나눔으로
서로가 함께 찾고 발견함으로 말씀 안에서 더욱 귀한 은혜를 나누기 위한 것이다.

c. 말씀 관찰3 : 1인칭 시점 읽기

말씀 관찰을 위한 마지막 방법은 1인칭 시점 읽기이다. 1인칭 시점 읽기는 성경의 이야기 내부로 들어가 그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전개를 파악하는 성경관찰 방법이다. 1인칭 시점 읽기는 본문을 진행이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을 바꾸는 것이다.⁷⁸ 즉 성경의 사건을 현장에 함께 있는 목격자 관점에서 읽고, 그 상황 속의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의 관점으로 다시 성경의 상황을 재 진술하는 과정이⁷⁹ 바로 1인칭 시점 읽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그전에 보지 못한 많은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성경의 인물과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⁸⁰

또한 이러한 성경 읽기는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인물이 나 자신이라고 가정하여 접근하기에 성경의 인물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고, 성경의 인물과 공감(또는 감정이입이라고도 함)되어 자신의 상처 받은 마음을 치유 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⁸¹ 이러한 공감능력을 가지고 1인칭 시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의 인물과 동질감을 경험하게 됨으로 성경의 ‘그 때 이야기’를 오늘 ‘나의 이야기’로 되살려 경험하게 되고,⁸² 이것은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아닌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로 다시금 살아있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1인칭 시점 읽기에 있어서 우리는 본문 안에서 3종류의 1인칭시점을 찾아야 한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점으로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상황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본문의 주인공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 생각하며, 그 주인공이 취한 행동과 태도 말을 자신의 언어로 바꿔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야곱이라면, 내가 다윗이라면, 내가 베드로라면 이라는 전제로 그 상황 속에서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상황을

78. Haddon W. Robinson & Torrey W. Robinson, *1인칭 내려티브 설교*, 전광규 역 (서울: 이레서원, 2004), 25.

79. Haddon W. Robinson & Torrey W. Robinson, *1인칭 내려티브 설교*, 36.

80. 곽윤숙, “가족의 죽음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6단계 귀납적 성경연구와 교안작성” (Ph.D. 학위논문, 백석대학교, 2019), 108.

81. 오성춘, *목회상담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384.

82. 곽윤숙, “가족의 죽음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6단계 귀납적 성경연구와 교안작성”, 110.

옆에서 지켜보는 제 3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는 것이다. 본문의 상황에 하나님과 그 대상자를 동시에 함께 보며 주변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위와 같은 세겹줄 개인 말씀연구의 관찰은 말씀을 보다 깊이 관찰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 체계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문단을 나눠 읽고, 꼼꼼히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를 찾아내며, 1인칭 시점으로 말씀 안에 들어가 그 상황 속에서 함께 공감하며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할 때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관찰은 자연스럽게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게 하고 또한 실천(적용)하게 한다.

2. 세겹줄 개인 말씀연구2 :해석

세겹줄 개인 말씀연구는 관찰에 이어 해석함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해석이라는 부분은 그 말씀을 자신의 삶과 비춰보는 거울이다. 해석에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의미와 지금 내 삶에 주시는 의미를 연결하는 과정이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문화는 분명 지금과 사뭇 다르다 여기서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가 다름이 아닌 그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뜻이다. 그러기에 관찰을 통해 그 시대와 문화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편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말씀을 관찰할 때 그 시대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에서 동일하게 전달되는 보편적인 의미는 쉽게 이해되지만 시대와 문화가 달라서 의미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의미를 그 당시의 의미와 지금 시대의 의미 모두를 해석하고 추론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생략되면 특정의 단어나 예언에 사로잡혀 잘못된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한부 종말론과 사이비 이단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인 말씀연구에 있어서 해석에 있어서 3가지 중심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문맥에 적합한 해석이다. 이 해석은 관찰에 있어서 체계적 읽기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체계적 읽기를 통해 문맥과 본문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다. 문맥에 흐름과 전혀 관계없는 해석을 주의하며, 그 본문의 의미가 나오게 된 이유를 앞 뒤 문맥에서 확인함으로 정확한 해석을 이루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이다. 이것은 꼼꼼히 읽기의 하나님 찾기와 1인칭

시점의 하나님 관점 읽기와 연결되는 것으로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며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에 근거한 해석이다. 이것은 꼼꼼히 읽기의 강조점과 새로운 것, 그리고 1인칭 시점의 주인공 제 3자 시점과 함께 이해하는 것으로 본문 안에서 발견되어진 것들의 의미를 본문의 다른 내용들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2장에 나타난 사도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세겹줄 해석 방법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2:1~3	세겹줄 말씀연구의 본문 해석방법
<p>1.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p> <p>2.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p> <p>3.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p>	<p>1. 문맥에 적합한 해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전1장에 고린도교회의 분쟁에 대해 바울의 권면이 등장. - 그 분쟁의 경고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함 <p>2. 하나님 중심적 해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이 정말 먹이고 싶으신 것? 밥 -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된 신자 되기 원하심 <p>3. 본문에 근거한 해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문에 나오는 젖과 밥의 차이? - 젖: 누군가가 소화해서 전해주는 양분 - 밥: 스스로 소화하는 양분 / 말씀을 젖이 아닌 밥으로 먹어야 한다.

고린도전서에는 사도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생긴 분쟁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특별히 2장에 들어서 사도바울은 성숙되지 못한 그 교회 성도들을 밥을 먹지 못하고 오직 젖을 먹는 성도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성숙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며 격려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이런 의도를 이해하며 해석하는 것이 문맥에 적합한 해석이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 그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닌 밥을 먹는 성도로 성숙되기 원하는 마음이 이 본문에 담겨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 해석이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밥과 젖이란 개념을 이해하면 젖은

누군가에 의해 음식물이 소화되고 영양분이 만들어진 양분이란 개념에서 마치 설교자가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전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밥은 직접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이 이해하고 해석함으로 누리는 양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기에 본 연구자는 이 본문은 성도 스스로가 목회자나 다른 누군가의 해석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닌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말씀을 해석함으로 영적인 양분을 흡수하는 신앙인으로 성숙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 이런 방식으로 관찰을 통해 본문에서 찾은 의미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해석이라 할 수 있다.

3. 세겹줄 개인 말씀연구3 : 적용

세겹줄 개인 말씀연구의 마지막은 적용이다. 말씀연구에 있어서 적용은 말씀을 관찰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한 후 삶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중요한 마침표와 같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말씀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말씀은 들음에서 시작하여 열매 맺음으로 마쳐야 한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연결되면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이다.⁸³

개인 말씀연구에 있어서 적용도 역시 3가지 핵심적인 부분으로 적용해야 한다. 첫 번째 적용방법은 말씀중심의 적용이다. 이것은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여 발견되어진 의미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적용방법은 나 중심적인 적용이다.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면서 발견된 말씀은 오직 나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많은 성도들이 범하는 실수중 하나이다. 그들이 설교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좋은 말씀이네 하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요구하는 실수를 범한다. 오직 내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적용하는 것이 바른 적용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적용이다. 구체적이란 의미는 측정가능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한 주간동안 지낸 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그 말씀을 실천했는지 하지 못했는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겠다.’ 하는 것보다 ‘하루에 몇 분, 언제 어떻게 기도하겠다.’ 라고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적용하면 한주일이 지난 시점, 자신의 적용을 되돌아보는 시점에

83.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자신이 그렇게 실천했는지 하지 못했는지 알 수 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른 적용이다.

성경 앞에 ‘홀로 있음’이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관찰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해석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때 분명 개인의 삶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은 절대 관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회자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성도가 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특정의 몇 그리스도인에게나 목회자를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성도가 각자 자신의 방법으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해석하며 적용할 때 교회공동체 안에 더욱 풍성한 은혜가 흐르게 될 것이다.

B. 회중예배에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대로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 세상과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이 확산되는 중요한 도구로 공동체의 예배를 허락하셨다. 그러기에 예배는 그저 그리스도인들이 특정의 시간에 모여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목회자의 말씀 해석을 듣는 시간이 아닌 나에게 주신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과 만나는 시간이고, 그 만남을 통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다.

1. 목회자의 ‘홀로 있음’ (예배를 위한 목회자 말씀연구)

예배는 교회가 결코 함께 모인 정기적인 시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시간이 예배이다. 그러기에 세겟줄 말씀목회에 있어서 예배의 가장 첫 출발점은 목회자가 먼저 그 말씀 앞에 ‘홀로 있음’의 시간이다. 세겟줄 말씀목회는 기본적으로 한 주간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서도록 요청하고 그 본문을 미리 한 주전에 나누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목회자가 먼저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연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결국 예배의 시작이 될 것이다.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신학과 성서학을 공부하고 연구한 자로서 앞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성경을 균형 있게 관찰하고 해석하며 적용해야 한다. 목회자 말씀을

바르게 관찰하지 않을 때는 말씀의 균형이 깨져 한쪽으로 치우친 말씀으로 흐르게 되고, 또한 말씀과 자신의 주장을 혼동하여 말씀을 인용한 자기주장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러기에 목회자는 주어진 본문을 체계적 읽기와 꼼꼼히 읽기 그리고 1인칭 시점 읽기로 먼저 말씀 안에 들어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성도들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전하고 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설교자가 본 문안에 들어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회중예배의 시작이 될 것이다.

2. 회중예배에서 말씀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⁸⁴ 살아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그러기에 말씀이 어떠한 영향과 결과 그리고 열매를 맺을지는 인간이 예측 할 수 없다.

세겹줄 말씀목회에 있어서 미리 말씀을 연구한 성도들은 회중예배에서 자신이 준비한 의미, 그리고 설교자가 설교하는 의미와 전혀 새로운 은혜를 발견한다. 설교자가 전한 해석과 의미가 아닌 그리고 자신이 한 주간 동안 연구하며 묵상한 은혜와 의미가 아닌 전혀 다른 의미를 설교시간에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살아있어 그 회중예배시간에 역사하기에 때문이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한 가지 의미로만 내용으로 전달되고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나름의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했을 때 자신이 연구한 말씀의 해석과 의미와 설교자가 한 주간 말씀 앞에 ‘홀로 있음’으로 준비한 말씀의 해석과 의미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그 시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전혀 새로운 말씀의 해석과 의미가 회중예배라는 말씀의 만남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즉 성령께서는 예배시간에 성도들과 설교자 모두에게 역사하시어 그 시간, 하나님이 전하는 뜻을 찾게 하신 것이다.

말씀목회에 있어서 회중예배는 각 성도가 주중에 본문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말씀과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만나는 시간이며 교통하며 역사하는 시간이다. 회중예배에 있어서 설교의 비중은 높다.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84.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12).

뜻을 깨닫고 발견한다. 그러나 결코 설교자가 준비한 것만 나눠지게 해선 안 된다. 각 성도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본문 안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해하며 예배로 나오게 되면 설교자가 준비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말씀과 은혜가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3. 공동체로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기

회중예배에 있어서 설교자가 말씀 앞에서 ‘홀로 있음’을 통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 앞에서 ‘홀로 있음’으로 깨달은 말씀과 만나는 것이 이어지게 될 경우 교회 전체 공동체로 그 말씀은 확산되어 진다. 이것은 예배 후에 소그룹으로 따로 모여 ‘함께 있음’을 누리는 것과 다른 의미이다. 회중예배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됨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런 경험은 매 예배시간에 누리는 것이 아닌 특별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 회중예배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경험이다. 사도행전 성령강림 사건이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나누며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로 변화되었다.⁸⁵ 이것은 어떤 시스템이나 소그룹 모임 그리고 특정의 리더에 의해 계획하고 운영된 시스템의 결과가 아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모든 성도가 예배 안에서 하나 됨을 경험한 결과이다. 세겟줄 말씀목회에 있어서 이런 예배를 꿈꾸며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꿈과 비전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추구한다.

이런 하나 됨의 예배는 성도들이 자발적인 헌신으로 나아오게 하고,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 할 뿐 아니라 개인이 말씀 앞에 더욱 ‘홀로 있음’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 이러한 예배는 오직 성령의 역사와 임재로 가능하기에 설교하는 목회자는 더욱 철저히 말씀 앞에 ‘홀로 있음’의 은혜를 구해야 하며,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은 이런 예배를 꿈꾸며 준비해야 한다. 찬양팀과 안내팀, 새가족팀과 중보기도팀 등 모든 봉사자들이 이런 예배가 매 주일 진행되도록 함께 헌신하는 과정과 훈련이 반복되어야 한다.

85.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44~46).

C. 말씀 앞에 '함께 있음' (소그룹 말씀연구)

하나님은 말씀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확산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구약 신명기에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손목에 매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라⁸⁶ 말씀하셨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남기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명령이셨다.⁸⁷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모든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원하시고 확산되어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기 원하신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백성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 그러기에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 '함께 있음'을 이뤄내야 한다.

1. '홀로 있음'의 은혜가 용납되는 공동체

교회는 말씀 앞에 '함께 있음'을 누려야 한다. 이를 위해 반드시 성도들은 말씀 앞에 먼저 '홀로 있음'을 누려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홀로 있음'은 말씀에 자신을 비취보는 것으로 결국 말씀을 통해 자신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직면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말씀 앞에서 자신이 발견한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을 때는 결코 성도의 '홀로 있음'이 교회의 '함께 있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를 위해 소그룹 공동체는 성도 각자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 놓을 때 용납됨을 경험해야 한다. 이런 경험은 공동체에 신뢰를 줄 수 있고, 더 많은 연약함을 내어줄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소그룹 인도자는 먼저 말씀 앞에 '홀로 있음'을 누리고, 먼저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내어놓아야 한다. 그래야 소그룹 리더의 이런 모습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또한 이를 위해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소그룹 인도자는 목회자와 함께 소그룹을 형성하여 소그룹 인도자들이 먼저 지도자 모임에서 먼저 용납됨을 경험해야 한다. 그 경험과 은혜로 소그룹에 들어가 성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86.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8~9).

87.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20).

용납하고 이해하는 은혜의 확산이 이뤄져야 한다.

세겅줄 말씀묵회에 있어서 묵회자는 회중예배에서 말씀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먼저 그 소그룹 지도자들을 소그룹 인도자모임에 초청해 먼저 용납됨을 경험케 하는 것이다.

2. ‘홀로 있음’을 통해 ‘함께 있음’의 발견

세겅줄 말씀묵회에서의 소그룹은 자신이 말씀 안에서 누렸던 은혜와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 그리고 상태를 쏟아놓기 전 먼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진단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인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구역모임이나 QT모임은 말씀을 먼저 연구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모이기에 단순히 친교적 차원에서 성도의 상태와 감정 그리고 환경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세겅줄 말씀연구의 소그룹 모임순서는 먼저 자신의 상태나 감정 그리고 환경을 말하기 전 먼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뉘 준비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한다. 즉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구조를 파악하며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본인들이 찾은 해석들과 말씀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과 다른 점을 서로 비교하고, 나눔으로 보다 깊은 말씀의 의미를 소그룹에서 함께 해석하는 과정을 가진다. 이를 통해 말씀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고, 말씀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함으로 자신의 환경적인 문제에 답을 스스로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인 것이다. 그래서 세겅줄 말씀연구의 소그룹 모임은 옆에 있는 표와 같이 진행된다.

소그룹 인도자는 소그룹에서 가장 중심 되는 것은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세겅줄 말씀묵회 소그룹 진행

1. 본문 읽기

/ 한절씩 돌아가며 읽기

2. 본문 짧게 묵상하기 (3~4분 정도)

/ 본인이 연구하고 생각했던 말씀해석을 다시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
연구해 오지 않은 성도들을 배려

3. 본문 구조와 핵심구절 나눔

/ 본문을 체계적 읽기로 파악한 구조
핵심구절을 나누며 왜 그 구절이
핵심구절인지 나누는 시간

4. 하나님 찾기

/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자신이 가장 은혜 받은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지 나눔

5. 주제와 해석 나눔

/ 본인이 연구한 본문의 주제와 해석을
나누면서, 그 본문 주일설교에서
자신의 해석과 연결된 부분 또는
다르게 해석된 부분을 나눔

성도들의 감정이나 상태에 집중하면 자칫
친교모임으로 흘러가기 쉽다. 그러기에 소그룹
인도자는 가능한 본인이 먼저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보다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발견한 것들을
나누게 하고 그렇게 발견한 내용과 해석에 대해
격려하고 칭찬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소그룹은 기도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 서로가 가진
기도제목을 나누게 함으로 그 기도 속에서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나눴던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되게 하는 힘을
얻게 된다.

3. ‘함께 있음’에 초대

세겹줄 말씀목회는 전체적인 세 가지 흐름이 서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말씀 앞에서 온전한 ‘홀로 있음’의 은혜를 누린 자는 회중예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롭고 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또한 소그룹 안에서 온전한 ‘함께 있음’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회중예배에서 은혜를 누린 자는 그
예배의 감격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 ‘홀로 있음’을 누리고 또한 소그룹 안에서
온전한 ‘함께 있음’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또한 소그룹에서 ‘함께 있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다음 소그룹에 은혜를 나누기 위해 말씀 앞에 ‘홀로 있음’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또한 회중예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롭고 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

즉 이 세겹줄 말씀목회는 전체가 유기적이며 통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람을 ‘함께 있음’에 초대하기
원한다. 그 ‘함께 있음’은 단순히 소그룹 안에서 누리는 ‘함께 있음’ 뿐 아니라
회중예배 안에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한 공동체로 느끼게 되는 ‘함께 있음’이며,
홀로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서도 함께 나눌 성도들을 머리에
떠올리며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갈망이 나게 하는 ‘함께 있음’이다. 세겹줄
말씀목회는 유기적인 세 가지 변화과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연속성의 목회이기에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초대하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6. 기도제목 나눔

/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받은 은혜와
자신이 가진 기도제목을 나눔

7. 함께 중보기도 후 인도자 마무리기도

/ 나눔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소그룹 인도자가 마무리기도

D. 적용과 평가

본 연구자는 2018년에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에 부임하여 목회하고 있다. 담임목사로 부임하자마자 처음부터 이 세겍줄 말씀묵회를 시작하진 못했다. 묵회 적응과 준비과정,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쌓기 등 여러 부수적인 사역에 집중하다가 2021년부터 이 세겍줄 말씀묵회를 시작하여 2023년 올 해 3년째 진행 중이다. 말씀연구 모임으로는 지금 청년부는 매주 모임을 진행하여 매주 세겍줄 말씀연구 방법으로 청년부 모임을 진행 중에 있고, 장년들은 월2회 구역모임으로 세겍줄 말씀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특별히 매년 2회에 걸쳐 개인말씀연구 방법론 특강을 실시하는데 2023년 올해 2월에도 세겍줄 말씀연구를 위한 말씀연구 방법론 강의를 실시하였다. 사실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개인성경연구에 대한 거부반응이 존재하였다. 방법론이 어렵다고 말하며 거부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또한 방법론을 강의할 때 거부가 아니라 이해가 부족하거나 적용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이 개인성경연구 방법론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실천하려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렇게 성경연구 했을 때에 누렸던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겍줄 말씀묵회가 특별히 기존교회 묵회방식과 기본적인 형식이 다른 것은 아니다. 매주 마다 주어진 본문으로 설교하고, 그 본문 말씀으로 구역모임을 진행하는 형태는 기본적인 묵회형태이고, 세겍줄 말씀묵회라고 하는 관점을 빼면 기본교회가 가지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 세겍줄 말씀묵회가 기존의 묵회 방법을 깨뜨리거나 혁신하는 것이 아니기에 어느 성도도 이 세겍줄 말씀묵회 자체를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분명 자신이 온전히 따라가진 못할 수는 있어도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교회 예배와 구역모임은 그대로 진행하기에 큰 어려움 없이 기존교회에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의 나눔에 대해 나누게 되면, 어느 모태신앙 성도는 자신은 평생 한 번도 주일 전에 묵회자의 설교 본문을 읽어서 온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미리 읽고 말씀의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고 예배에 나왔을 때에 평소보다 더 많은 말씀의 의미와 은혜를 발견했다고 간증했다. 또한 어느 성도는 말씀은 그저 읽는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의미를 처음 알았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의미를 찾았을 때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다고 간증했다.

또한 구역을 이끌고 있는 구역장들과 리더모임을 가질 때 리더 중 한분은 말씀을 먼저 나눔으로 성도들이 스스로 답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고백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목회자는 순서에 맞춰 본문을 배포하고 나누는데 자신의 삶에 꼭 필요한, 자신에게 딱 맞는 말씀이 등장하고 그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는 고백을 구역모임 가운데서 간증했다. 또한 이런 말씀연구로 구역이 모이게 되면 깊은 말씀 나눔으로 장시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구역모임을 가지고 있다.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는 2021년에 신약의 누가복음으로 2022년에 구약의 여호수아 말씀과 사사기로 그리고 올 해 2023년은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 있다.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세겹줄 말씀목회 방법으로 목회할 것인데, 특별히 성도들의 반응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이 풍성한 목회가 되도록 수정 보완해 갈 것이다. 또한 지금 비록 4개 구역에, 적은 숫자가 모여 말씀을 나누지만 말씀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목회해 나갈 것이다.

V.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세겍줄(통전적) 말씀목회’를 통해 상처와 아픔을 가진 미주 한인이민교회가 가져야 할 바른 목회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목적으로 논문은 본 연구자가 섬기는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 역사에 남겨진 상처와 아픔들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이유와 진단을 통해 말씀목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말씀목회의 모형을 성경적 근거와 본회퍼의 공동체 그리고 귀납적 성경연구를 통해 찾아보았고 이에 맞춰 세겍줄(통전적) 말씀목회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4장, 말씀목회의 이론적 고찰에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목회의 모형을 느닷세 왕 이후 타락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변화시킨 요시아 부흥운동과 사도바울이 꿈꾸는 교회의 모형을 골로새서 3장 16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본회퍼의 책 *성도의 교제* 와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 에 기록한 말씀중심의 공동체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회퍼는 *성도의 교제*에서 말씀은 관계성,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서 결코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닌 공동체로 확산되어 지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성품)이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인처럼 집단 인격으로 실재화한다고 보았다. 즉 말씀이 공동체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다. 또한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 에서 말씀 앞에 ‘홀로 있음’을 이루는 각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통해 공동체가 ‘함께 있음’을 이뤄나가야 함을 봄으로 말씀이 중심 되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귀납적 성경연구의 특성을 통해 말씀이 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부분에 대해 찾아보았다.

이 논문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한인이민교회를 돕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즉 성도들이 가진 어려움과 문제를 성경에서 찾는 말씀목회를 하기 원하는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길이 되고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뤄내는 교회로 목회하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자는 지금도 상처와 아픔이 있는 한인이민교회가 가져야 하는 바른 목회가 무엇인지를 찾는데 이 논문이 중요한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 우선 ‘세겍줄(통전적) 말씀목회’를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에 뿌리내리고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가 초대교회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있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목회할 것이다. 또한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가 ‘세겍줄(통전적) 말씀목회’의

샘플로 자리매김함으로 한인이민교회 목회 현장에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찾아가는 한인교회들로 세워지기에 이 논문이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하나님이 이 미국 땅에 세우신 한인교회가 가져야할 바른 목회 방향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며 바른 목회가 세워지기 위해, 특별히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가 말씀중심의 목회를 통해 그동안 가져왔던 상처와 아픔 불신과 절망을 이겨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기대한다.

I. Introduction

Every Korean immigrant church in the US has its own pains and wounds because they have forgotten its God-given calling and have failed to minister properly. This thesis aims to discover what kind of ministry God wants while discovering and understanding the pains and wounds of the congregation while ministering at Cleveland Korean Presbyterian Church. Additionally, it aims to find a proper ministry approach to break the cycle of distrust caused by the pain and wounds of the congregation to build a church that God desires. Thus, the scope and limitation of this thesis is to diagnose the issues and wounds of Cleveland Korean Presbyterian Church to analyze what is necessary for a proper ministry as a Korean immigrant church and overcome the challenges. ‘Three-Strand Bible Study’ that centers on the Word of God will be presented as the proper ministry direction. The research will start with the awareness of the current issues at Cleveland Korean Presbyterian Church and deliver pastoral solutions.

II. Cleveland Korean Presbyterian Church’s Splits and Wounds

Cleveland Korean Presbyterian Church is the first church established by Korean immigrants in Cleveland, Ohio, in 1969 through sacrificial efforts and dedication during the early years of immigration. The church has a long history of over 50 years and has faced many difficulties and pain

A. History of the Splits and Wounds

Cleveland Korean Presbyterian Church was founded on April 27th, 1969, when Korean immigrants first held their monthly worship service at Miles United Presbyterian Church in downtown Cleveland. It was their first worship service as a Korean church with songs sung in Korean in the Cleveland area, and many shed tears of joy. At first, the church operated around lay congregations as they were without a clergy minister. It wasn’t until July 1973 that Pastor Byung Hee Lee came as the first senior pastor. His pastoral approach was on the passionate Spiritual Movement, and he held services during the week and on Sundays. This Spiritual Movement functioned as a refuge and healing

for the Cleveland immigrants who were bruised and hurt. But this Spiritual Movement faced opposition from conservative congregation members and ended up in a church split on October 2nd, 1977.⁸⁸ This was the first split of Cleveland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the 1980s, other denominational ministers began to move to Cleveland, and churches of various denominations were being founded. In 1981, another split occurred, forming a Methodist church centered around Rev. Chun Soo Jeong, who was an assistant pastor at Cleveland Korean Presbyterian Church at that time. In addition, a Baptist church in 1983, a Church of the Nazarene in 1987, and a Kosin Presbyterian denominational church were divided. One significant event was more recent where in 2016, there was an issue with a minister joining the denomination and ended up taking with him around fifty church members and founding Cleveland Zion Community Church. This split within the church in 2016 also involved legal disputes between members and left deep scars to the congregation. Considering there are only about twelve Korean immigrant churches in the Cleveland area now, it is noteworthy that most churches have divided and split from Cleveland Korean Presbyterian Church.

B. Congregation's lingering wounds and continued distrust

When the researcher first took office in 2018, there were only 12 elderly members at the first worship service held at the church. Although the church had fully equipped facilities such as the main sanctuary, education building, kitchen, and fellowship hall because of its 50-year history, they were unused and vacant from members leaving the church. The remaining members were still carrying the wounds and pain from the past. The first and most visible wound was distrust. They had no trust in the ministers and had no trust in believers. They could not trust the ministers because they had been hurt repeatedly by ministers and fellow members that they had entrusted. It had grown into an atmosphere where believers could not trust those serving alongside them in the church.

88.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 “교회역사”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 2018. 10. 31.
<https://ckpc.us/bbs/board.php?bo_table=history> accessed by 2023. 2. 14

III. The Necessity of Bible-Centered Ministry at Cleveland Korean Presbyterian Church

Looking at the history of the church, there are definitely traces and evidence of efforts made by previous pastors that served. The first pastor, Byung Hee Lee, pursued a passionate style of faith centered around Spiritual Movement, stressing tongues, corporate prayers, Spiritual experiences, and healing ministries. However, focusing on the Spiritual Movement led to the split. Therefore, upon examining the vision and the wounds of Cleveland Korean Presbyterian Church, the fundamental cause is the failure and absence of individuals' life in the Word and the lack of biblical identity, which only weakened the community's identity.

A. Need of Biblical Worldview and Missions

Professor Jung Yong Lee's *Marginality: The Key to Multicultural Theology* defines the identity of Korean immigrants as beings who find themselves between two worlds without being able to be integrated and thus destined to have a marginality of living in between the two worlds.⁸⁹ For Korean immigrants, living marginally in Cleveland meant that the Korean church became a space where they could voice and assert their opinions and arguments as well as a channel to satisfy their greed and ambition of wanting to place themselves in the center. But this marginality only made the disputes and conflicts even greater. The only way to have a proper centrality is to seek a creation-minded center that places Jesus Christ in the center.

B. Need of Biblical Communal Identity and Servanthood

Due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Cleveland area, there was a low influx of Korean immigrants. Because of this,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mall Korean immigrant population in the area have been significant. Unfortunately, minor issues in relationships at the church have caused and led to church split, leaving much pain and wounds. It was entirely due to the church's failure to understand its identity as a church community. They did not have a proper sense of community identity. Regarding this characteristic of Korean churches, Professor Daesung Kim from McCormick Theological

89. 이정용, *마지널리티*, (서울:포이에마, 2014), 74.

Seminary pointed out that a high number of attendances in Korean immigrant churches is also due to the fact that they function not just as a place of faith and ethnicity but also as a center for culture and educational needs. In other words, Korean churches have a cultural and ethnic identity that takes priority over their identity as a community of faith and belief.⁹⁰ The church has been busy addressing secondary needs as primary needs while burying their identity as a biblical community. This led to a repeated cycle of splits and pain over history.

C. The Necessity of Bible-centered Ministry

In order to be healed from the wounds and pains of the conflicts left from the church's past; to be transformed into a new church that God desires; and to overcome the issue of the lack of calling and identity biblical community, Bible-centered ministry is desperately necessary. It means that the Word will be the center of the church, bringing transformation in the individual lives of the believers and making small groups active in the Word and thus promoting newer, deeper relationships between the believers. This Bible-centered ministry must be comprehensive by affecting individuals, small groups, and corporate worship. It means taking a step forward to be a church community that God wants and delights in. In other words, the church should be led by the Special Revelation, which is the Word.

IV. Theological Considerations for Three-Strand Bible Study

Many ministers have served in ministry dreaming of the kind of ministry God desired. And as a result of their work, we as Christians, are now living in the church communities enjoying the effects of the Gospel and salvation. Every pastoral ministry has been different according to the time period and the target congregations, changing and transforming in various ways over time. Although the methods of ministry have changed, one foundational aspect remains unchanged: the Word of God, which is the Special Revelation, the center of every ministry.

90. 김대성, *미주 한인들이 교회로 모이는 이유*, (미출간 논문) 2018, 5.

A. Biblical models for Bible-centered Ministry

In the Bible, God calls out a person and transforms the community through that person. It is a common phenomenon throughout the Bible. God works by spreading His Word through the person it was given to. It is still true today. God continues to search for those who will obey and dedicate themselves to sharing His Word, and He gives them His Word to transform themselves and the community.

1. King Josiah's Rediscovery of the Scripture and Reformation of the Kingdom of Israel

In the Bible, there are incidents where the Word of God was spread to the community through an individual. One of those events was the revival movement that occurred during the reign of King Josiah. King Josiah first had the intention to repair and refurbish the temple. Then he discovered the forgotten scrolls containing the Word of God. Upon hearing the news, King Josiah tore his clothes in repentance. Regardless of his position and status, he thoroughly responded to the Word he had heard and put himself under God's authority. And with the Word he had heard, he made sure all the people heard the Word as well, leading the Israelite community toward restoration. In addition, all idols and pagan temples were destroyed during this time. The people gathered together in Jerusalem to hold a grand Passover worship that had not been observed before.⁹¹ In other words, a prominent feature of Josiah's revival was not only the discovery of the Word of God, but the fact that this influence did not stop with Josiah the individual, but spread to all the people of Israel, leading them to break all the pagan altars and idols in each region and observe the Passover. This case of King Josiah's revival movement from the Word, proclaiming the Word to the Israelites,⁹² and

91. Neither in the days of the judges who led Israel nor in the days of the kings of Israel and the kings of Judah had any such Passover been observed. 23 But in the eighteenth year of King Josiah, this Passover was celebrated to the Lord in Jerusalem. (2 Kings 23:22-23).

92. This is part of the researcher's Three-Strand ministry where the place of meeting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community is a place of worship and the proclaimed Word spreads the personal Word to the community.

then observing the Passover altogether is a perfect example of his 'solitude'⁹³ before the Word that led to 'being together'⁹⁴. These three elements of 'solitude,' 'proclamation of the Word,' and 'being together' - are interconnected and Josiah's revival movement is therefore recorded as a historical account of God's will being realized on the earth.

2. Bible-centered Ministry in the Paul's Letter to Colossians

Paul wrote the Epistle to the Colossians while he was in prison. It presents a vision of what the church should look like according to God's will amidst the confusion and attacks from heretical teachings.⁹⁵ Colossae was a multicultural and multiethnic area, and therefore the Colossian church faced issues and confusion from variously diverse thoughts and especially heretical influences. For this church, Paul emphasizes faith that centers around Jesus Christ who is in all creation. In Colossians 3:16, there are three stages of exemplary life of faith: first is to dwell abundantly in God's Word; second is to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and the third is to give thanks to God and continue worshiping with songs of praises..⁹⁶ This verse implicitly shows the proper ministry direction that Paul was trying to communicate. The Protestant reformer, Spener, further explains these principles in his work, *Pia Desideria*, using Colossians 3:16 about church's internal renewal.⁹⁷ He emphasizes that life in the Word needs to be a top priority and a prerequisite for the church to be renewed. Paul's dream for the Colossian believers was for them to enjoy the blessings and grace of Christ's Word and share it through worship and teaching.

93. According to *Life Together* by Bonhoeffer, an individual must live out their faith before God first.

94. This concept found in *Life Together* by Bonhoeffer means that believers establish a community to fulfill God's will by living together

95. Martyn Lloyd-Jones, 골로새서 강해, 강철성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74

96. Let the message of Christ dwell among you richly as you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with all wisdom through psalms, hymns, and songs from the Spirit, singing to God with gratitude in your hearts. (Col. 3:16).

97. P. J. Spener, 경건한 열망, 모수환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9), 99.

B. Bonhoeffer's Theological model for Scriptural Ministry

Dietrich Bonhoeffer was a German theologian known for his theology of Activism. His theology is relevant to the church today in that he believed that individual faith must ultimately spread to the community

1. Community built on the Word: *Sanctorum Communio*

Bonhoeffer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 community built upon the Word. He asserted that the Word itself has both a social and communal nature, and the community that is formed throughout history by the Word is the church. In *Communio Sanctorum*, he defined the church as “God’s new will to be with humanity”.⁹⁸ In addition, he maintained that the church community is the setting in which God continues His work of creation through His Word. This shows the attitude that the churches should have today.

Furthermore, Bonhoeffer claimed that “the Word has a social character not only in the beginning, but also to the end”.⁹⁹ It means that hearing the Word leads to relationships and ultimately community. In other words, the Word does not remain only with individuals but spreads to the community, and the community takes on a social character as it follows the Word. It is crucial to note that Bonhoeffer was not saying that the community is where the Word of God, His will, would be fulfilled. But instead, he was saying that the Word itself has a communal nature.

Additionally, Bonhoeffer argued that the community identity, which is the church, should function and live out in Jesus Christ and through Jesus Christ as ‘one individual’.¹⁰⁰ It means that an individual can only exist through others and just as personality is formed within a relational context, a Christian’s responsibility is demanded through relationships formed in Christ. It is not only for an individual but also for the community, which is the church.

98. Dietrich Bonhoeffer, *성도의 교제*, 유석성, 이신건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125.

99. Dietrich Bonhoeffer, *성도의 교제*, 140.

100. Dietrich Bonhoeffer, *성도의 교제*, 83

2. ‘Solitude’ and ‘Being Together’: *Life Together*

Bonhoeffer wanted to actualize the new community movement that he experienced at Finkenwalde Seminary from 1935 to 1937 with the pastoral candidates at the Confessing Church. And with that experience, he wrote the book, *Life Together*. The book emphasizes that the community must live together under the Word and discusses ways of achieving that. Bonhoeffer claimed Christians can only live from “Word given to us” from “outside of us”.¹⁰¹ And the Word is primarily captured by the Word given from outside before it is spread to others. In other words, a complete community is possible through sharing the Word with one another and Bonhoeffer called this “Gemeinsamen Andacht”¹⁰² or “worship community”. These worship communities, according to Bonhoeffer, link both “solitude” and “being together” without separating the two. Bonhoeffer argues through *Life Together* that individual solitude before God results in togetherness with others and this process is accurately reflected in the communal worship in the church. He believed such a life of worship ultimately fulfills the church’s mission through service.

C. Bible-centered Ministry through Inductive Bible Study

Inductive Bible Study method is a methodology that extracts the essential meaning of biblical texts by focusing on the evidence in the text and historical contexts. It aims to achieve a more accurate and original interpretation.¹⁰³ In other words, it involves deep reflection on the background and meaning of that biblical text to let the Bible speak for itself.

1. Personal Life Transformed by Inductive Bible Study

Inductive Bible study involves observing and interpreting the text for oneself, rather than relying on the interpretations of others, so that the Bible can speak for

101. Dietrich Bonhoeffer,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 23.

102. Dietrich Bonhoeffer,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 68

103. Hans Finzel, 귀납법적 성경 연구 실제-성경해석의 새로운 접근방법, 이종록 역 (서울:두란노,1994), 35.

itself.¹⁰⁴ To do this effectively, the most important aspect is to observe the text correctly. Inductive Bible study seeks to discover the intention and meaning of God's Word that is being communicated to us and then applying that understanding to life. The idea is that the Word can transform our lives but this transformation can only happen when we seek God's heart and will, and allow our own thoughts and perspectives to be changed by God's Word. In this sense, inductive Bible study starts with finding the meaning and intention within the Word and continuing to lay down our own thoughts, allowing God to transform us according to His purpose.

2. Community Transformed by Inductive Bible Study

In the New Testament, the word for "church" is "ekklesia", which is a compound word of the Greek "ek", meaning "out", and "kaleo", meaning "to call", which refers to a "called-out, summoned assembly".¹⁰⁵ This term originated from the "meeting of the people" of the ancient city-state of Agora. The calling refers to God's calling and promise and the church exists for the sake of that calling. In other words, the church can be renewed when it understands and interprets God's calling before anything else. This means that the power to transform a community is not in people's efforts but dependent on how much people understand God's calling. Only through the Bible, the Special Revelation, can the church be renewed and transformed.

V. Three-Strand Bible Study for Cleveland Korean Presbyterian Church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the Scripture-centered ministry presented in the previous chapter, here is the Three-Strand Bible Study. The Three-Strand Bible Study expands the inductive Bible study methodology to spread the study of the Word beyond individual's meditation to the community as a whole, incorporating the spreading of the Word into ministry. This methodology requires an integrated ministry process that encompasses all stages of the process together. The

104. David R. Bauer & Robert A. Traina, *귀납법적 성경연구*, 윤철호 역 (서울: CLC, 2014), 41.

105. Hans Küng, *교회*, 정지련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14), 41,

Three-Strand Bibl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ree-Strand Bible Study				
Word of Revelation (Solitude)			Proclaimed Word (Corporate Worship)	Shared Word (Being Together)
1st Stage	2nd Stage	3rd Stage		
Observation	Systematic Reading	Understanding the flow of the Word	Minister receiving the Word from “Solitude”	Community that accepts “Being Alone”
		Paragraph Division		
		Identify Key Verse		
	Meticulous Reading	Finding God	Proclaimed Word at Corporate Worship	Discovering “Being Together” through the Word
		Finding the Emphasis		
		New Finds		
	1st-Person Perspective Reading	God’s Perspective		
		Protagonist’s Perspective		
		3rd Person’s Perspective		
Interpretation	Contextually appropriate Interpretation		Word empowered through the Holy Spirit’s Presence	Invitation to “Being Together”
	God-centered Interpretation			
	Text-based Interpretation			
Application	Word-centered Application			
	Me-focused Application			
	Specific Application			

This Three-Strand ministry holistically interconnected with one another, activating the Word of Revelation (Solitude) and proclaimed Word (Corporate Worship) through shared Word (being together). An individual's received Word of Revelation does not end at the individual, but influences the proclaimed Word (Corporate Worship) as well as shared Word (being together).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storal methodology is holistic and interconnected. Therefore,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aims to evaluate and lay this Three-Strand Bible Study.

A. ‘Solitude’ before the Word: Personal Bible Study

In Three-Strand Bible Study, Cleveland Korean Presbyterian Church will list the Bible passages to be meditated for that week in advance in the weekly bulletin, allowing the believers for a time of “solitude” before the Word.

1. Three-Strand Personal Bible Study 1: Observation

a. Biblical Observation 1: Systematic Reading

Systematic reading is a process of organizing basic paragraph structures contained in the Bible from a personal perspective. By grasping the structure within the Bible through systematic reading, one can observe the Word with a new perspective.

b. Biblical Observation 2: Meticulous Reading

Meticulous reading means to observe God’s heart that is present in every verse and word. Through this, we discover God’s hidden messages in deeper places. It is like finding a hidden picture by searching for the words’ meaning in the context and passage. We discover the message that God has given us now by searching for the meaning of the words found there.

c. Biblical Observation 3: 1st Person’s Perspective Reading

1st-person perspective reading is a method of studying the Bible by entering the story and understanding its content and development from the viewpoint of the person mentioned in the text. It is not about changing the progression or the content of the text, but rather about changing the perspective from which the text is viewed.¹⁰⁶ In other words, it involves reading the events of the Bible from the perspective of a witness who was present at the scene and then retelling the scene in the Bible from the

106. Haddon W. Robinson & Torrey W. Robinson, 1인칭 내려티브 설교, 전광규 역 (서울: 이레서원, 2004), 25.

perspective of one of the characters involved.¹⁰⁷

2. Three-Strand Personal Bible Study 2: Interpretation

The Three-Strand personal Bible study method allows for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Word's meaning by observing and interpreting it. The interpretation step serves as a mirror, reflecting the Word upon one's own life. In interpretation, it is crucial to connect the meaning of the Word with life's relevance. There are three central aspects to interpretation: context-appropriate, God-centered, and text-based.

3. Three-Strand Personal Bible Study 3: Application

The final step of the Three-Strand personal Bible study method is application. In terms of Bible study, application is the final punctuation mark of observing the Word, interpreting its meaning, and practicing it in life.

B. Proclaimed Word through Corporate Worship

God allowed worship to be an essential tool in spreading the Word. Worship is not a time to listen to the preacher's interpretation of the Word, but a time of meeting with the Word and receiving the Word given to self, and experiencing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s a result of that.

1. Minister's 'Solitude': Minister's Bible Study for Corporate Worship

Preparing for worship is worship in itself. In the Three-Strand Bible Study, the starting point for worship is the minister's time of 'solitude' before the Word. The Three-Strand Bible Study is fundamentally about meditating and studying the same passage with the congregation for one week and seeking God's will together.

2. Meeting the Word through Corporate Worship

As recorded in the Bible, the Word of God has vitality and momentum.¹⁰⁸

107. Haddon W. Robinson & Torrey W. Robinson, 1인칭 내러티브 설교, 36

Being alive means having life, which means that it is impossible to make predictions. Therefore, humans cannot predict what kind of impact, result, and fruit the Word will bear. In Scriptural Ministry, worship and sermon time means discovering and enjoying a completely different meaning from the preacher's sermon or personal Bible study. Corporate worship is a time when each believer's meditated Word from personal study meets the preacher's sermon and a time for the Holy Spirit to communicate and work

3. Facing the Word as a Community

In corporate worship, when the preacher's 'solitude' in the Word meets the believers' meditation of 'solitude' in the Word, the Word is able to spread to the whole community. It is experiencing the church becoming one in corporate worship. In the Three-Strand Bible Study, we seek and pursue such dreams and direction where the church community moves forward together with shared dream and vision.

C. 'Being Together' before the Word: Small Group Bible Study

God desires that His Word is spread to all His people. Therefore in the Bible, God spoke and said to bind His promises on the wrist and wear them as symbols on the forehead.¹⁰⁹ The Church must enable the believers to "being together" before the Word.

1. 'Solitude' as a Grace for Whole Community

The church must enjoy and relish "being together" before the Word. To achieve this, the believers must first experience 'solitude' before the Word. And this 'solitude' is to reflect on oneself before the Word, facing one's own weaknesses and shortcoming through the Word. And then one can move forward "being together" by sharing and revealing one's own weaknesses to the community before the Word.

108. For the word of God is alive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joints and marrow; it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heart. (Heb 4:12)

109. Tie them as symbols on your hands and bind them on your foreheads. Write them on the doorframes of your houses and on your gates. (Deut. 6:8-9)

2. Discovering ‘Being Together’ through ‘Solitude’

In the small group setting of the Three-Strand Bible Study, the members share from their personal bible studies. It is important to diagnose their own state before the Word before pouring out their emotions, feelings, and other conditions. By making their interpretations collide with the Word, the Word speaks to them, and it is essential for the community to help find solutions to their contextual life issues by discovering deeper meaning of the Word.

3. Invitation to ‘Being Together’

In the Three-Strand Bible Study, there are three interconnected flows that influence one another. Those who experience the grace of ‘solitude’ before the Word discover more and more amazing truths and grace that God has prepared through the worship service. Also, they can experience the fullness of ‘being together’ within small groups. In other words, this Three-Strand Bible Study is entirely organic and holistically interconnected.

V. Conclus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the proper pastoral ministry through the Three-Strand Bible Study for Korean immigrant churches in the US that are wounded and are still in pain.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 examined the wounds and pains present in the history of Cleveland Korean Presbyterian Church where the researcher is currently serving and presented the reason and the diagnoses for the need of such Scriptural Ministry. Then the research presented the Three-Strand Bible Study models based on biblical evidence, Bonhoeffer’s community, and inductive Bible study. I hope this research will be used to assist Korean immigrant churches with wounds and pains. This research hopes to provide a fresh way for ministers who are looking for solutions in the Word and want to do Scriptural Ministry, discerning and actualizing God’s heart and will in church ministry.

참고문헌 (Bibliography)

서적(Books)

- 김근주. *나를 넘어서는 성경읽기*. 서울: 성서유니온, 2017.
-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 김운용. *포스트모던 시대의 설교*.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4.
- 박영선. *설교자의 열심*. 서울: 규장문화사, 1999.
- 오성춘. *목회상담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 이정용. *마지널리티*. 서울:포이에마, 2014.
- 이재천. *개인 성경 연구 핸드북*.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2003.
- 전중현. *본회퍼의 생애와 사상*. 서울: 좋은땅, 2020.
- 조기연. *예배 갱신의 신학과 실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Bauer, David R.& Traina, Robert A. *귀납법적 성경연구(Inductive Bible Study)*. 윤철호 역, 서울: CLC, 2014.
- Bonhoeffer, Dietrich. *성도의 교제(Communio sanctorum)*. 유석성, 이신건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 Bonhoeffer, Dietrich.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Gemeinsames Leben)*. 광계 일 역. 서울: 빌리브, 2010.
- Craddock, Fred B. *권위 없는 자처럼 : 귀납적 설교의 이론과 실제(As one without authority)*. 김운용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4.
- Fee, Gordon D., & Douglas Stuart.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How to Read the Bible Book by Book)*. 오광만, 박대영 공역. 서울: 성서유니온, 2016.

- Finzel, Hans. *귀납법적 성경 연구 실제-성경해석의 새로운 접근방법(Unlocking The Scriptures)*. 이종록 역. 서울: 두란노, 1994.
- Küng, Hans. *교회(the church)*. 정지련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14.
- Henrichson, Walter. *평신도 성경해석 지침(Layman's Guide to Interpreting the Bible)*.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 Lloyd-Jones, Martyn. *골로새서 강해(Exposition of Colossians)*. 강철성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 McClymond, Michael J. and McDemott, Gerald R. *한권으로 읽는 조나단 에드워드신학 (The Theology of Jonathan Edwards)*. 임요한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5.
- Piper, John. *존 파이프의 성경읽기 (Reading the Bible Supernaturally)*. 홍종락 역. 서울: 두란노, 2017.
- Robinson, Haddon W. & Robinson, Torrey W. *1인칭 내려티브 설교 (First-person Narrative Messages)*. 전광규 역. 서울: 이레서원, 2004.
- Spener, P. J. *경건한 열망(Pia desderia)*. 모수환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9.
- Traina, Robert A. *귀납적 성경연구(Inductive Bible Study)*. 김기천 역. 대구: 보문출판사, 1998.
- Wiersbe, Warren W. *상상이 담긴 설교(Preaching & Teaching with Imagination)*. 이장우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 Wilkinson, Bruce. *배우는 이의 7가지 법칙(The 7 Laws of the Learners)*. 홍미경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8.

논문(Essays)

- 곽윤숙. “가족의 죽음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6단계 귀납적 성경연구와 교안작성.” Ph.D. 학위논문, 백석대학교, 2019.
- 강치원.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라-렉시오 디비나 전통과 루터의 관점에서 슈페너 읽기.” 장신논단 제41호. 장로회신학대학, 89-111.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1.
- 김대성. “미주 한인들이 교회로 모이는 이유.” (미출간 논문). 2018.
- 김외식. “크래독(Fred B. Craddock)의 귀납적 설교이해.” 신학과 실천 제5호. 한국실천신학회, 9-36. 서울: 한국실천신학회. 2002.
- 안병찬, 황병준. “크래독(Fred B. Craddock)의 귀납적 설교와 라우리(Eugene Lowry)의 내러티브 설교를 활용한 설교의 플롯 구성과 메시지의 이미지화 연구.” 신학과 실천 제63호. 한국실천신학회, 127-155. 서울: 한국실천신학회. 2019.
- 유관용. “효과적인 설교전달을 위한 연구: 귀납적 설교를 중심으로.” : Th. M. 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2014.
- 유은희. “교회의 본질과 말씀에 기초하여 다시 찾아가는 기독교교육의 단서.” 성경과 신학 제100호. 한국복음주의신학회, 31-63. 서울: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21.
- 정용한. “다문화 사회를 위한 골로새서의 통전적 읽기와 신학적 주제.” 신학논단 77집.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269-296. 서울: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2014.
- 주인옥. “삶의 변화를 위한 귀납적 성경공부 방법에 대한 탈비평적 해석과 적용.” 기독교교육논총 제18집. 한국기독교교육학, 259-282.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8.
- 황정임. “한국교회의 성경공부 교재분석과 교육적 평가.” Ph. D 학위논문. 고신대학교. 2015.

Shared previous week's passage for the congregation to prepare the message.

2023년 10월
성령의 능력으로 세대를 세워주는 교회

제 54-06호 | 2023년 2월 5일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Cleveland Korean Presbyterian Church
클리블랜드한성교회

설교자는 사목장
10월 15일 | 임병희
장 모 | 이상훈, 황계현

<http://www.ckcps.us>

2023년 10월 15일

주일 대 예배 (Sunday Worship)	매주 주일 11:00am	본 당
금요찬양예배 (Friday Praise Worship)	매주 금요일 7:30pm	본 당
토요새벽예배 (Sat Morning Worship)	매주 토요일 7:00am	본 당
청년부, E.M 모임 (Youth & English Ministry)	매주 주일 1:00pm	친교실
중고등부 모임 (Middle & High Bible Study)	매주 주일 1:00pm	교육관
유치초등부 모임 (Elementary Bible Study)	매주 주일 1:00pm	교육관

· 교회의사는 길

Tel) 216-459-8512 4839 Pearl Rd, Cleveland, OH 44109

- 69 -


 주일예배
 
 교회소식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토요새벽예배

말씀핵심구절

봉사자 안내

2023년 표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제 54-07호 | 2023년 2월 12일

예배 및 모임 (Worship & Meeting)

※ **다락방 금요예배 장소 정리작업**
이번주 토요일(2/18) 새벽예배 후 3월부터 시작될 다락방 금요예배를 위한 예배실 정리작업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바랍니다.

※ **Education Ministry (교육부 사역)**
교육부 모임이 점심식사 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사역자 청방을 진행중입니다.
어제까지 사역자 자료를 받았고, 내일 인터뷰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바랍니다.

계시판 및 성도소식 (Notice & News)

※ 병환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기도
병환으로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바랍니다. (오영자 권사, 정태석 집사)

지난주 현금명단 표기, 순서

심일조 박동식(오미선), 이규재(문영선), 이상용, 임병희(황정현), 정아진(장유선), 조수현, 정주연(홍준), 황계현(이영진), 문명

가사희곡 뱀피터(뱀줄리) 인선경, 전지미, 전지선, Angela, 문명

김희조, 서희철(비.내), 이경희, 이소연, 임병희(화정현), 전하나

주정헌금 김근조, 차근철(차근찬), 이영희, 이우진, 임종희(임종민), 조민희, 정태석(최부윤), 정환순, 최연호(권선경), 무명

선교헌금 조속회

기타헌금 **[용도헌금]** 임병희(황정현)

[illegible]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Cleveland Korean Presbyterian Church

출판사: 한신출판사 | 저자: 이상용, 황계현 | ISBN: 978-89-5461-111-1

주 일 대 예 배 (Sunday Worship) 매주 주일 11:00am 본 당

금요찬양예배 (Friday Praise Worship) 매주 금요일 7:30pm 본 당

토요새벽예배 (Sat Morning Worship) 매주 토요일 7:00am 본 당
청년부 E.M 모임 (Youth & English Ministry) 매주 주일 1:00pm 치교식

중고등부 모임 (Middle & High Bible Study) 매주 주일 1:00pm 교육관

유치초등부 모임 (Elementary Bible Study) 매주 주일 1:00pm 교육관

Tel) 216-459-8512 4839 Pearl Rd, Cleveland, OH 44109

- 70 -

※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 소그룹 모임 교사자료 (2023년 2월 5일)
 Church Small Group Leader Handout (February 5th, 2023)
 한주 전 1월 28일에 나눠준 행1:3~26 본문을 중심으로
 Based on Acts 1:3-26 which was handed out one week before on Jan 28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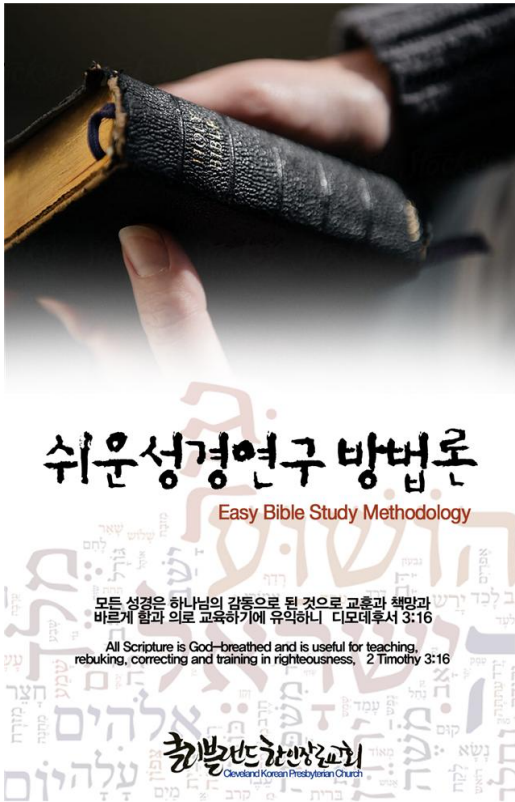
문단구조	하나님 찾기
3~8: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 9~11: 예수님의 승천 12~14: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 15~22: 베드로의 설교(사도 보충) 23~26: 맛디아를 사도로 선택	다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8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사명을 이루게 하심 -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뜻) 다윗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 (16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약의 예언 성취 -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에서 발견 맛디아를 선택하신 하나님 (26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최선 이후에 하나님의 선택 -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24절)
핵심구절	강조점 찾기
<p>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및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p> <p>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행1:13-14)</p> <p>-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p> <p>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이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수님의 명령 (4~5절) 2) 받은 사명을 위해 (8절) 3) 해야 할 일을 위해 (21~22절) / 우리가 교회에 모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 	<p>(반복) 하늘 (4번: 10~11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수님의 시작 (사역) 하나님의 나라 -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 하늘 <p>/하늘만 보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해야 할 일을 하라는 천사의 이야기 /해야할 일? - 기도, 제자보충</p> <p>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수님의 승천이후 다른 어떤 일보다 기도에 힘쓰는 제자들 / 사명과 연결 <p>제자의 조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요한의 세례부터 함께 있던 사람 (21절) 2)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22절) 3) 봉사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 (25절)

1.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렸던 다락방이 있으신가요?
 그 다락방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2. 2023년 새로운 구역모임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제목은 무엇입니까?



※ 클리블랜드 한인장로교회 말씀연구를 위한 교육자료
Educational material for Bible Study at Cleveland Korean Church
말씀 앞에 '홀로 있음'을 위한 성경연구 방법론 (연 2회 실시)
Bible Study Methodology for 'Solitude' before the Word



클리블랜드한인장로교회
Cleveland Korean Presbyterian Church

쉬운성경연구 방법론

목차 (CONTENTS)

1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 당연한 제언 / 진단과 분석 / 대안: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적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2
2과) 성경은 쉽고 연구방법도 쉽다 자세히 읽기 / 기존의 성경연구방법의 한계 / 새로운 관점으로 / 어떻게 자세히 읽을 것인가?	10
3과) 아는 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하자 / 아는 것 중심의 성경연구 / 참고 의미에 대해 좀더 알아보기	14
4과) 해석에 대해 더 알아보기 / 해석이란 무엇인가? / 해석의 원리와 규칙과 방법	21
5과) 말씀연구의 꽃은 올바른 적용이다 / 해석을 위한 관찰 / 참고 문맥에 따른 관찰방법 / 적용의 원리와 방법	25

성경연구 방법론

1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적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많은 오해들, 잘못된 관행과 생각들이 이 당연한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갈로 인해 영아의 핍절함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적당히 훑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A. 당연한 제언 : 모든 성도는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1.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데살로니가전서 2:13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2.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디모데후서 3:14-15

14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읽어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3.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로마서 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4. 성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강해진다.

*사도행전 20:32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디모데후서 2:1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5.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제와 교제를 누린다.

*요한복음 1:1,14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6. 성경으로 성도는 온전해지며 거룩해진다.

*디모데후서 3:16-17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시편 119:9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